창작산실

믿고 보는 올해의 신작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2019.12 - 202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연극
무용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연극, 무용,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등 공연예술 전 장르에 걸쳐 프리프로덕션,
공연, 재공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 창작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입니다.

Arko Selection은 공연예술창작산실의 영문 브랜드로서,
심벌마크는 ART의 A와 별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뛰어난 예술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 검증된 작품임을
의미하는 Arko Selection의 심벌마크는 곧 관객의 작품
선택을 위한 새로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은 작품성을 기반으로 더 큰 무대로 진출,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례

003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 소개

연극

008 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 – 극단 난희
014 수정의 밤 – 극단 여행자
020 체액 – 즉각반응
026 터널구간 – 극단 그룹 動·시대
032 마트료시카 – 극단 수
038 아랫것들의 위 – 극단 마고
044 대신 목자 – 극단 물리
050 의자 고치는 여인 – 극단 물결

무용

058 오월바람 – M발레단
064 호모 파베르 – Unplugged Bodies
070 군림 – Soo d Art & Co
076 新청 랩소디 – 라만무용단
082 Body Rock – 미나유
088 Swan Lake; The Wall – 정형일 Ballet Creative
094 Hit & Run – 시나브로 가슴에

전통예술

102 삼대의 판 – 천하제일탈공작소
108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 수궁가 – 입과손스튜디오
114 팔음(八音) – 음악그룹 나무
120 오래된 미래: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이야기 – 해금플러스

창작뮤지컬

128 안테모사 – 공연창작소 M.A.P.
134 봄을 그대에게 – (주)컬처마인
140 Via Air Mail –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146 아티스 ARTIS – (주)홍컴퍼니

창작오페라

154 김부장의 죽음 (원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 – 오페라뱅크
160 까마귀 (원제: 내가 까마귀였을 때) – 라벨라오페라단

166 장르별 역대 선정작

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 — 굴단 권위

수정의 밤 — 굴단 어행자

체액 — 즉각반응

터널구간 — 굴단 그룹 動·시대

마트료시카 — 굴단 수

아랫것들의 위 — 굴단 마고

의자 고치는 여인 — 굴단 물길

대신 목자 — 굴단 물리

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



극단 난희

목련이 필 때면 처음 마신 술을 떠올리고,
꽃이 질 때면 옛 사랑을 기억하리.

젊은 연극인들이 운영하는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 그곳에 저마다 상처를 가진 손님들이 찾아와 술을 마신다. 카페에서 진행하는 연극을 보고 실랑이가 벌어져 감춰두었던 삶의 내상이 불쑥 모습을 비추기도 하지만, 봄밤의 아름다움 속에 또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삶을 지속한다. 추운 겨울을 견디는 카페 디오니소스에서 일어나는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 이야기.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 2020년 1월 12일(일)
공연 시간 | 평일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4시
(월요일, 1/1 공연 없음)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90분 예정
티켓 | 전석 3만원

분장디자인 | 이동민
음악감독 | 김은정
움직임 | 금배섭
사운드디자인 | 목소
소품디자인 | 장경숙
컴퍼니매니저 | 권정희
조연출 | 김형식
무대디자인 | 이윤수
조명디자인 | 김성구
의상디자인 | 유진영
연출 | 김명화
극작 | 김명화
출연진 | 명계남 양동탁 박희은 서정식 노준영
드라마터그 | 임승태

작품의 모티브가 디오니소스와 크레타 섬의 미궁 신화입니다. 어떤 부분에 영감을 얻었나요?

김명화(연출) 신화는 우리 모두의 근원이고 디오니소스는 술과 연극의 신, 연극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연극과 우리 모두의 근원과 만나고 싶어 디오니소스를 소재로 삼았고, 그의 주변 인물들 차용했습니다. 가령, 디오니소스를 키운 실레노스, 디오니소스와 결혼한 아리아드네, 미궁을 지은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 등 입니다. 근원과 만나기 위해 신화의 세계로 뛰어드는 대신 그들을 우리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관객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크레타 섬의 미궁 신화를 가지고 온 것은 그 신화를 통해 자신들의 미궁에 갇혀 길을 잃은 우리 시대의 관객들을 대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주배경이 카페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명화(연출) 카페와 바는 고독한 현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카페 공간에 있을 때 군중 속의 고독이 주는 편안함이 있죠. 저는 군중 사이의 고독이 좋아 카페에서 주로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합니다. 때때로 연습이 끝난 뒤나 연극을 보고서 집에 돌아가기 싫은 쓸쓸한 밤엔 카페나 바의 스탠드 조명에 기대어 맥주 한 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카페나 바가 고독한 현대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디오니소스가 좋아하는 공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된 시간적 배경을 봄밤으로 설정한 이유는? 또 관객들에게 봄밤의 정취를 보여주기 위해 무대나 소품에서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나요?

김명화(연출) 시간적 배경은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꽃샘추위로 아직 얼얼하게 춥지만 공기에는 봄기운이 서린 밤입니다. 마음의 겨울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고 싶어 그 시간의 봄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취를 무대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연극적으로 상상하게 하고 싶군요. 극중 대사를 한 토막 인용하겠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 라일락 꽃이 없어도 우리가 라일락에 대해 이야기하면 라일락 향기를 맡아본 관객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겠죠. 코로 맡지 않더라도 몸에 저장된 어떤 기억이나 가능한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연극이겠죠."

작품 속에서 가장 공을 들여 연출한 장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김명화(연출) 이 작품은 신화와 일상, 그리고 극중극의 세 층위가 존재하는 까다로운 연극입니다. 이 세 층위가 어떻게 연극 전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관객들에게 감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극이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시적으로 발현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순간을 섬세한 밀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김명화(연출) 특별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만 극장에 연극을 보러 온 관객들이 잠시 자신들의 시간을 잊기를, 그러다 문득 무대 위의 모습에서 자신들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비록 그 순간이 찰나의 순간이지만 아름답고 애틋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기를, 스스로를 납득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연극이 끝나고 극장 밖을 빠져나갈 때, 극장 바깥의 날씨는 서릿발처럼 차가운 겨울이지만 관객들 마음 한구석에 봄이 깃들길 바랍니다.





극단 난희

2017년 희곡 작가 김명화가 창단한 극단이다. 향기나는 무대 언어로 작품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고민하여 살아있는 연극성을 모색한다. 개별 작품마다 연대하고 흩어지는 프로젝트 시스템으로 운영하지만, 앙상블을 위해 출연진, 스태프진과 일회적으로 작업하지 않고 연속성을 만들어 나간다. 창단 공연 〈냉면〉(2018)을 시작으로, 〈햄릿, 죽은 자는 말이 없다〉(2019), 동시대 연희 창작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미마지!〉(2019) 낭독 공연을 거쳐, 현재 2019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를 준비 중이다.

"(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는 섬세한 집중이 있는 작품이다. 다만 섬세함만으로 현재 우리의 상처와 고독을 이야기하기에는 과하다는 느낌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현대인의 쓸쓸함을, 또 삶의 순결과 추함을 무대에 그리려는 행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다."

"이 작품은 낭만적이면서도 이성적이다. 바에 찾아온 인물들 모두 그곳에 혼자 와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인사를 하고 봄철 꽃이 필 때를 떠올리며 잔을 기울인다. 물론 낭만을 찾기 힘든 현실적 이유는 많지만, 애초 작품에서는 굳이 그것을 상기하지 않는다. 중간에 사소한 말다툼과 해프닝도 있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어느 인물도 서로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지도, 얻지도 않는다. 정확하게 필요했을 때에만 감성적이며,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지 않을 정도로 이성적이며 상대와는 일정선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스 신화를 동시대에 접목하려는 의도는 유효하다고 여긴다. 다만 디오니소스 신화를 중심에 놓고 보니 연극의 기원이나 개념에 관한 설명을 소개하는 데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한 장소를 중심으로 카페(일상), 신화(판타지), 극중극(연극) 간의 다른 연출적 표현을 시도했다. 출연자의 기량은 대체로 우수하다고 판단하며, 무대 장치와 소품 배치 등은 세심했다."

"이번 공연은 인류 보편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화를 통해 현재 우리의 초상과 상처를 표현하고 보듬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반은 흥미롭고 반은 따분하다. 신화와 현재가 매끄럽게 조우했을 때 시너지를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 작품 근원에 납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이 '신화' 때문에 현재의 이야기-어쩌면 더 중요할-가 방해받거나 표피로만 머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를 중요한 소재로 활용한 연극이라 주제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재현한 무대가 관객에게 큰 거부감을 주지 않으며, 유명 배우가 등장하기 때문에 관객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 좋다고 생각한다."

"대본 완성도가 높았다. 쇼케이스 때는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배역의 이름이나 의미도 어려운 데다가, 각자의 사연과 사건들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기가 조금 힘들었다. 그런데, 본 공연은 전혀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었고, 각자의 작은 사연들이 그리스 신화를 어렵지 않게 만들었다."

"이전 김명화 작가의 희곡 스타일이 단단하고 굵은 기둥에서 가지가 뻗어 나무가 완성되는 느낌이라면 이 작품은 역으로 작은 가지들이 모여 기둥을 만드는 느낌이다. 작은 가지들의 힘이 다소 약한 느낌이지만, 각자의 인물이 만들어 내는 몇몇 주제는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어 좋았다."

"무대의 완성도는 뛰어났다. 소극장이지만 목련이 보이는 창문과 연극을 하는 무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작은 테이블과 바의 모습까지 연출 의도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각각 의미 있게 다가왔다. 쇼케이스에서는 못 보았던 랩 장면과 이벤트처럼 관객에게 술 한 잔을 건네는 장면은 남녀노소,나이불문 꽤 흥미롭게 다가오는 연출인 것 같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공간 구성과 배우들의 동선이 편안함을 주었다. 무대 한편에 마련된 또 다른 무대와 프레임으로 표현된 창, 창밖의 목련까지 공연의 여백과 연출의 여백이 잘 어우러졌던 것 같다."

"취준생 짝사랑 작가, 외로운 연극배우이자 술집 사장, 그리고 술주정뱅이인 양아버지, 상처 많은 솔로 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들이 딱 맞는 연기로 풀어주었다. 과하지 않고, 담담하게 상처를 풀어가는 모습에 눈물이 나기도 했다."



수정의 밤



극단 여행자

1962년 조중변계조약을 배경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선을 담아낸다.

1962년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 그어지던 길림성 조선족 마을. 〈수정의 밤〉은 간도와 신의주를 경계로 국경선이 그어지던 때, 그곳에 살고 있던 국적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연극이다. 이 작품은 국경선이 그어지는 배경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고 갈라지고 단절되는 선들을 그려낸다.



일시 | 2019년 12월 27일(금) – 2020년 1월 5일(일)
공연시간 | 화-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3시
(1월 1일 공연 없음)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100분 예정
티켓 | 전석 3만원

연출 | 이준우
극작 | 김도영
출연진 | 김은희 전중용 이윤재 이종윤 남승혜 김상보 전수지 김효영

이 작품의 핵심 소재가 되는 '수정'이 갖는 의미는?

이준우(연출) 제목이 〈수정의 밤〉입니다. 모르는 분이 많겠지만, 수정의 밤은 독일에서 '깨진 수정의 밤'으로 불립니다. 유대인의 거리가 피로 물들고, 수백 장의 상점 유리가 깨져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리아인의 혈통 우월주의가 부른 동족상잔의 비극이었고, 영토, 종교, 인종,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보이지 않는 국경이 갈라놓은 인간성의 균열로 비춰졌습니다. 본 작품의 제목을 '수정의 밤'으로 삼게 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수정 그 자체를 인간성으로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소중하게 잘 다루어야만 하는 바로 그 수정을 우리는 잘 다루고 있는지, 혹은 이미 깨진 채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은 저 스스로에게도 중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작인 〈무순 6년〉 등 생소한 시대적 사건에 주목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에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준우(연출) 넓게 보면 동아시아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작업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무순 6년〉에서부터였습니다. 일본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정신분석을 다룬 책을 접하면서 중국 무순전범관리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조사하다 보니 중국만의 역사가 아닌 우리와 관계된 역사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에도 유효한 질문들을 갖는 역사들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록과 루시〉, 〈왕서개 이야기〉, 그리고 이번 〈수정의 밤〉은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며 참고했던 자료, 또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준우(연출) 본 작품은 방대한 자료 수집을 통한 정확한 사실의 전달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몇몇의 우수한 논문들에서 실제 북·중간에 발생하는 밀거래들을 파악하였고, 연변 라디오의 과거 자료, 탈북자들의 수많은 인터뷰 자료, 나아가 조선족과 남한의 관계, 중국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 조선족의 관계들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무척 독특한 공간입니다. 군사분계선을 제외하면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사실상 인접한 국경지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경선의 문제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반면 무수한 차이들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국경선은 어느 나라들 못지 않게 혼잡한 공간입니다. 국경선을 이탈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다시금 특수한 국경 속에 놓이게 되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겨놓은 수기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연출과 작가가 여러 작품을 함께 작업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협업하면서 장점이라고 느낀 게 있으셨나요?

이준우(연출) 작가와 연출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 숱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한 작품 안에서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작업을 하며 과정이 쌓이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선택을 좀 더 넓게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 작품을 잘 완성시키는 것보다 함께 하는 동료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리하여 다음, 또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희망을 쌓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으면 하나요?

이준우(연출)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수정의 밤〉에서의 '수정'은 인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 우리 자신의 '수정'을 잘 다루고 있는지, 혹은 이미 깨진 채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극단 여행자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찾으며 축제성이 강한 작품들로 연극의 본질을 탐구, 도전하는 실험정신이 강한 극단이다. 또한 동양 연극 정통과 세계 무대를 향한 보편적 연극 언어를 추구하고, 대사 중심의 연극에서 벗어나 배우들의 신체와 몸으로 만드는 이미지와 감각적인 미장센들로 고유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1997년 결성 이래로 〈한여름 밤의 꿈〉을 비롯하여 〈緣 KARMA〉, 〈환〉, 〈미실〉 등 신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동양적인 정서의 음악, 의상, 무대 미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적인 미를 기본으로 한 극단 여행자만의 작품 스타일은 국내외의 다양한 페스티벌에서도 그 작품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03년 제15회 카이로 국제실험연극제 대상(〈緣 KARMA〉), 2006년 제10회 폴란드 그단스크 국제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대상 및 관객상(〈한여름 밤의 꿈〉)을 수상하며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2006년에 한국 최초로 영국 바비칸 센터 초청 공연, 2012년 한국 연극 최초 런던글로브극장 초청 공연 등 한국연극계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지만, 당시의 긴박한 정세나 이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는 이러한 사건에 영향받는 개인의 서사를 통해 경계의 의미에 접근한 것이 유의미하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국경선과 그 너머의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면에서 소재와 주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 연기를 통해 사건 이면의 것에 도달하려는 작품 방향에 공감되었다."

"국경이라는 경계와 그 속에 사람을 내세우는 주제가 창작 의도에 따라 잘 전달되었다. 소재나 주제가 참신하지는 않지만 익숙하면서도 안정적이라 관객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하겠다."

"극장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매체로 가지는 연극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 이번 공연의 인물과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충분히 환기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인물과 이야기를 좀 더 다듬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는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긍정적인 가능성도 가득하다. 이 젊은 창작집단이 시선을 던지고 있는 주제, 시대, 역사 등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공연은 무대와 음악, 인물들의 몸짓 등 시작부터 끝까지 그럴싸한 분위기를 풍긴다(연출한다). 1962년 조중 변경의 배경과 시대상 또한 묵직하다. '수정의 방'이라는 제목도 세계사에 관심 있을 사람에게는 어딘지 멋지고 거창하다. 그럼에도 하나의 작품으로 집단이나 창작자 개인의 모두를 보여줄 수 없다. 주제를 좁히고 중심 인물을 두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젊은 창작집단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작품이 조금 더 수정 보완된다면 레퍼토리로서도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공연도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쇼케이스를 본 관객 평가단이 진부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공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간도를 배경으로 국경의 문제를 다루기에 참신해 보일 수 있지만, 경계와 인간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주제가 다소 진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관객으로서는 쉽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대가 지나치게 사실적이라 참신성이 떨어질 수 있었지만, 무대의 깊이를 이용하는 방식이 극과 잘 어울렸다."

"변계협약에 대한 지식만 갖춘다면 관객 대부분이 극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극의 긴장감과 상황이 명확하게 주제를 시사하며 인물들의 갈등 구조 또한 강렬하게 다가왔다."

"변계협약에 관한 이야기를 연극에서 처음 보았다. 근대사를 다루는데도 시의성이 높게 연출됐다. 또한 제목을 수정의 밤(유대인의 아픈 역사)으로 지어 관객에게 사고의 확장을 유도했다."

"우수한 연출과 우수한 연기, 우수한 무대가 만나 조중 변계협약을 새롭고 확실하게 풀어냈다. 해당 작품이 주는 높은 시의성이 관객들에게 역사의 문제를 한번 더 돌아보게 한다. 끈질기게 한 주제를 놓지 않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힘을 높이 평가한다."

"무대 완성도는 완벽했다. 쇼케이스에서도 연변의 골동 품가게와 그 뒤에 드리워진 국경선의 경계들이 아름답다고 느껴질 정도로 호감도가 높았다. 무대만으로 대략적인 궁금증을 안고 극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쇼케이스에서 인상 깊었던 부부가 무대 경계에서 대립하여 서 있는 장면, 서로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아파하고 고뇌하는 장면들이 사라져서 아쉬웠다."

"연기도 매우 훌륭했고 몰입감도 아주 높았다. 모든 배우가 자신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될 만큼 이미지 캐스팅도 좋았다. 대사 전달력 또한 매우 높고 실수도 없어서 보는 내내 집중하게 했다."



체액



즉각반응

불감증에 걸린 여자,
매일 조금씩 자신의 물을 잃고 메말라가서
언젠가 자신이 먼지처럼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달리는 여자

불감증에 걸린 여자는 매일 밤 다한증 남자와 역할극 섹스를 한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을 감춘 채, 서로의 판타지 속 누군가가 된다. 역할 놀이를 중심으로 중간중간 여자의 과거인 마트 장면들이 끼어든다. 여자의 방과 마트라는 두 공간 사이를 오가며, 이야기는 불감증 여자의 내면을 파고든다. 여자의 역할 놀이가 반복될수록 여자의 현실은 점점 기괴한 꿈처럼 변해간다. 과연 불감증 여자는 매일 물기를 잃고 메말라가는 자신을 다시 한번 적실 수 있을까?



일시 | 2020년 1월 10일(금) – 1월 19일(일)
공연시간 | 평일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90분 예정
티켓 | 전석 3만원

작화 | 배윤미
홍보물디자인 | 김정윤
사진·영상 | 노신회
홍보 | 김서희 조하나
제작PD | 차정훈
안무 | 이윤정
무대·조명디자인 | 남경식
영상디자인 | 윤민철
의상디자인 | 홍문기
분장디자인 | 백지영
연출 | 하수민
작가 | 신해연
출연진 | 이은주 이진경 임영준 오민애 최석준 이세인 김아영
조연출 | 심민섭
음악감독 | 지미세르

이 작품의 모티브와 창작 배경은 무엇인가요?

신해연(작가) '서서히 메말라 부서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에서 출발했어요.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부서져 가는 서로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이미지를 지금 여기의 현실에 발붙이게 만들려면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완전한 판타지의 세계에서 시작했고, 그러다가 불감증 여자를 떠올렸어요. 오르가즘을 잃어버린 여자. 결국 신체적 불감이란 정서적, 사회적 불감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했고, 이 여자는 부서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얼려버린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들었죠. 또한 그 시기에 기사에서 자신의 아이를 냉장고 속에 얼린 여자에 관한 기사를 보았고, 저는 제가 상상했던 인물 역시 매일 밤 혼자 스스로 얼린 자기 자신을 마주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상상했어요. 매일 끝도 없는 비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슬픔을 하나하나 제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서 차라리 무감해지기를 택한 게 아닐까, 이러한 여러 질문과 이미지들이 합쳐져 '불감증 여자'라는 캐릭터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제목이 독특한데 '체액'으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신해연(작가) 단순히 성적인 불감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불감증을 떠올렸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액'으로 연결이 됐어요.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흐르면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체액이니까요. 눈물이나 땀, 피, 정액 같은.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진정으로 울고, 땀 흘리지 않는다면 그 역시 진정 살아있는 상태라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린 제목이었어요.

작품을 집필하고 연출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하수민(연출) 지금 시대의 다양한 뉴스를 참고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불감증 여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지금의 뉴스에서 한 번은 다뤄졌을 것 같고 '불감증 여자'를 특별한 인물보다는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지점에서 해석해보려고 했고요. 뉴스가 전달되는 방식도 참조했습니다. 자극적인 문건 및 화면, 다양한 미디어에서 같은 이슈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스너프 필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뉴스의 방식은 작품에 등장하는 여자가 일하는 마트 공간에서의 뉴스, 그리고 여자의 거주하는 자취방에서의 뉴스 및 스너프 필름의 소스로 활용했습니다.

주인공을 불감증에 걸린 여인으로 정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신해연(작가) '불감증'에 시달리는 누군가가 지금의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은 생각과 판단을 신경쓰면서, 스스로 누려야 할 환희나 기쁨 등을 점점 잃어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왜 '여자' 캐릭터냐고 묻는다면 제가 여자로 살아가면서, 혹은 여자 캐릭터를 쓰면서, 지나치게 많은 설명 혹은 변명들을 요구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한 저 스스로도 어떤 상황에서 뭔가 계속 저의 정당성, 결백성을 증명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일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불감증 여자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겹쳐진다고 생각했어요. 불감증에 걸린 여자는 자신의 환희와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혹은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되찾기 위해서 애쓰지만 너무 많은 질문들이 여자를 온전히 자신의 오르가즘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요. 몸의 감각조차 의심하고 믿을 수 없게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무신경하고 폭력적인 사회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감각을 애써 무시하고 무감하게 만들어야 했고요. 저는 그게 지금의 우리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와 닿았으면 하나요?

하수민(연출) 이 시대에 쏟아지는 비극과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인간의 살아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서로에게 무감하지 않고 따듯하게 관계 맺는 것이 무척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즉각반응

즉각반응은 '지금, 여기'라는 동시대성 아래 연극의 행위와 관객이 즉각적으로 상호 반응하는 연극을 추구한다. 또한 연극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예술가, 예술장르, 매체와 유기적인 만남으로 연극의 경계의 확장을 추구한다. 작품으로는 〈Good Day Today〉, 〈12시부터 1시까지의 진경〉, 〈무라〉, 〈2017 애국가〉, 〈임영준햄릿〉, 〈햄릿릿햄〉, 〈유령 Live Stream〉, 〈새들의 무덤〉, 〈인간설명서〉, 〈체액〉 등이 있다.

"불감증에 걸린 여자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무대 활용(여자의 방, 마트 교차), 여러 자아를 지닌 캐릭터를 통해 개인의 불안과 고통을 다양하게 표현하려한 의도에는 나름 동의한다. 한 인물의 병증을 극적인 상황으로 전환해 다양한 감각으로 접목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었고, 배우들의 몰입도와 유연성이 돋보였다."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는 연극의 다양성에 대해 지지한다. 개성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 역시 지지한다. 난해하다고 좋지 않은 작품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관객들에게까지 확장하였느냐는 의문이다."

"불감증과 현대사회의 연결은 한편 참신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진부하고 뻔하다.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연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았다."

"해당 작품은 '파국 이후에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냉정히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유년 시절부터 억눌려온 개인의 자존감과 마트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행태와 맞물려 정신적인 파탄을 맞이한 불감증 여자의 삶은 삭막하다. 이러한 상태가 여러 배우에 의해 드러난다."

"자극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제목을 붙였지만, 연극의 전체적인 내용이 제목에 한정되는 느낌이 든다. 성적인 내용을 인간 본연의 모습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하지만 인간성을 잃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주제 의식은 진부한 면도 있다. 방향성이 '연극적'으로 귀결되고 있는지만 '실험적'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작품을 평가하기 어렵다."



"인간 존재를 '불감'을 통해 표현한다는 면이 인상 깊었다. 모든 배역의 상징적인 행동 속에 존재와 상실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관객에게 능동적인 관람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점도 보인다."

"돌이켜보니 모든 텍스트가 은유가 아닌 직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군더더기 없고, 주제에서 벗어남도 없었고, 서사보다는 현재 상황에 집중된 대사들이 공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과 딱 맞아떨어졌던 것 같다."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연출과 배우들의 작은 틈 아래로 등장하는 것은 독창성을 높여주었다. 무대 전체를 활용하는 배우들의 동선과 냉장고에 비추는 스크린, 동시다발적 연기가 관객의 시청각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불투명한 여자의 방과 문으로 드나들 수 있는 인물과 방의 벽 밑에서 기어나오는 인물들의 차이, 여자에게 흘러나온 모든 것이 담겨있는 '높은' 곳에 위치한 냉장고, 냉장고 안에 있던 오브제, 적절한 공간 배치 등 모든 것이 인상 깊었다."

"어렵고 불편한 극을 소화하고 연기하기 위해 배우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 연습을 오래 했는지 합이 좋았다. 다만 문득 연기자들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이 역에 임하는지 궁금했다. 이 극을 백 퍼센트 이해했을까?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건 배우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명인 듯 연기하는 두 불감증 여자와 불꽃 같은 어린 여자, 기계적으로 감정 노동하는 큰 여자, 마트 상사, 다한증 남자, 그리고 여자의 노년이지 않을까 싶은 만두 파는 여인까지, 여자의 변화 과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호연한 배우들이 돋보였다."

"참신한 소재와 유머러스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연출이 매우 좋았다. 그러나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은 어느 정도 친절할 필요가 있다. 줄거리의 이음새를 좀 더 탄탄하게 보완한다면 더 나은 작품이 될 것이다. 연출자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관객들이 좀 더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난해함이 주제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터널구간



극단 그룹 動·시대

물신(物神)을 향한 우리의 일면을 드러내다
껍데기증후군과 건조인간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체념의 시대

부(富)의 축적을 목표로만 살아온 장씨와 그의 가족. 장씨의 칠순을 맞아, 부(父), 모(母), 노여사(점쟁이)는 성공적으로 축적된 가족의 부(富)를 열정적으로 자랑한다. 마흔 가까이 아직 미혼인 딸과 아들을 위해 장씨는 오늘 야심찬 계획을 준비한다. '아비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여자'. 오늘 그녀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올 것이다! 딸과 아들은 폭력적이기까지 한 부모의 욕망을 증오하면서도, 감히 거부하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공포만 느낀다. 이때 벨이 울리고 한 검사가 찾아오는데….



일시 | 2020년 2월 7일(금) – 2월 16일(일)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110분
티켓 | R석 4만원 / S석 3만원

기획 및 홍보 | 홍이룡
출연진 | 장용철 박지아 송인성 이기돈 강정임 이혜진 송명기 현진 이진샘 김진솔
무대 | 김준성
영상 | 신성환
조명 | 김상호
의상 | 김지연
분장 | 백지영
극작 | 이상례
드라마터그 | 최영주
연출 | 오유경
음악 | 이호근
움직임 | 나지원

이상례 작가의 신작을 선택했습니다.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로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작품에 대한 첫인상과 연출을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오유경(연출) 2014년 연극 〈그림자아이〉를 통해 이상례 작가님이 사회 문제를 가족 구성원에 대입시켜서 독특한 화법으로 표현하신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던 차에 드라마터그를 맡아주신 최영주 선생님을 통해서 이상례 작가님을 뵙고 〈터널구간〉의 초고를 받았습니다. 작품을 고를 때 특별한 구성이나 화법을 주의깊게 보지만, 동시대에 던지는 울림이 무엇인지,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터널구간〉은 괴이하고 이상한데 친근감 있고 웃겼습니다. 그리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한 항공회사 재벌 가족을 둘러싼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지금의 시선이 이전 '부(富)의 욕망'을 드러내는 구조에서 '부(富)가 가져온 불안'을 그리는 서사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작품은 물(物)을 향한 욕망에 괴물이 된 자들의 병적 광기와 이 문제에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인간본능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부가 가져온 병폐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연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독특한데, 내포하는 의미는 뭔가요?

송인성(배우) 이 작품을 쓰신 이상례 작가님께 들은 내용입니다. 작가님이 어느 날 고속버스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 터널에 한동안 갇히게 되셨답니다. 그때 버스 속의 한 승객이 고속버스를 탄 순간부터 집안의 어떤 재산 문제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도 통화를 결코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자본의 논리에 지배를 받으면 함정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한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욕망과 결별할 수 없다.' 이것이 작가님이 작품 〈터널구간〉에 담고자 한 현시대 욕망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가족이 앓고 있는 병으로 껍데기증후군, 건조인간 등이 나오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장용철(배우) 소외와 고립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우리의 정신적 외상은 끊임없이 가지를 칩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것조차 지치고 부질없습니다. 설사 근본 원인을 알아냈다 해도, 해결과 치유의 방안은 묘연합니다. 왜냐하면 원인들은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찾아내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인을 추적하고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념하고 병증에 적응하는 걸 택하는 편이 쉽습니다. 무기력이 오래가고 우린 결국 껍데기만 남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사라지고 뼈대만 남은 집처럼, 작품 〈터널구간〉 속 딸과 아들의 병증은 진정한 관계와 자아가 사라진 껍데기증후군입니다.

물신주의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무대 위에서 신경쓴 포인트가 있을까요?

오유경(연출) 일상적 제스처를 기호화된 움직임으로 인물들의 병증과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리 속에 담겨있는 모호한 감정 상태는 영상과 음악을 활용해 표현했고요. 제가 포커스를 맞춘 세대는 장씨 같은 부모 세대가 아닌 '부(富)'의 혜택을 받았던 '원래', '미래'와 같은 자녀 세대입니다. 그 '부(富)'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태를 무대화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욕망과 결별할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등장 인물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극단 그룹 動·시대

1998년에 창단한 그룹 動·시대는 고인 물이기보다 흐르는 물이 되길 바라며, 모든 가능성에 문을 열고 관객과 만나려 한다. 그룹 動·시대는 활동범위를 통상적 의미의 연극이란 공연양식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공간 그리고 음악, 미술, 무용, 연기, 극작, 연출 등 각 공연요소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의 실험적 구성을 통해 최대한의 예술적 조화를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둔다. '그 순간', '그 곳', '그 경험'이란, 공연예술문화만의 원시적 매력인 현장성을 살려, 신선하고 독특한 그러면서도 시대를 묻는 진지한 공연을 창출하고자 한다.

"계획했던 항목별 구현 계획은 전반적으로 반영했으나 움직임과 영상 구현 부분은 아쉬웠다. 진부할 수 있는 소재를 표현주의적 양식에 접목한 블랙 유머로 결합해 희극적으로 드러낸 것은 해당 작품의 차별점이라고 여겨진다. 물신주의에 함몰한 삶의 황폐함을 '터널'에 대입한 것은 설득력이 있으며, 프로덕션 참여자의 성실함과 노련함이 돋보였다."

"급박하게 파국을 맞는 텍스트의 후반부를 보완하고, 연출가가 힘을 빼고 다시 손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역량 있는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러나 문제는 텍스트에 있다. 중반 이후 연극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갑자기 파국을 맞이한다. 개연성도 부족하고 뜬금없는 결말은 설득력이 없다. 의상도 그렇고 배우들의 양식적인 움직임도 오히려 극을 방해하는 느낌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구력을 갖고 다시 도전해보길 바란다."

"익숙한 소재를 낯설게 전달하는 연극적 묘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작품으로 보인다. 다만 관객이 작품의 내용과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공연 초반의 표현 양식이 급하게 진행돼 속도감은 있으나 대사 처리가 불안하고 극을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된다. 소위 '막장' 소재를 작품의 미학적 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터널' 이라는 공간적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또한 인물의 딜레마나 상황의 풍자성을 높이기 위해 움직임과 대사 간의 교란을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하는 블랙 유머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작품에 유효한 연기 양상, 무대 양식 등의 통일성을 보완, 강화했으면 한다."



"쇼케이스 때 꽤 인상 깊었던 작품이다. 우스꽝스러운 제스처와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었던 궁금한 내용이 실연에선 어떨까 기대를 많이 했다. 실제로 완성된 극을 접하고 나니, 100분이란 시간이 다소 길지만 재미있고, 의미 있고, 여운이 남는 만화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 들었었다. 작은 여러 개의 이야기가 합쳐져 큰 뜻을 만들어 내었다. 부와 권력, 결혼, 비혼, 사랑, 현실, 자본주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괴리감, 가정 폭력, 자살, 죽음 등등 현시대의 안타까운 많은 부분을 꼬집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장면에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현실을 지배하는 물욕(건조하고 연속성을 띨 수 없음) 과 그와 상반되는 힘을 가진 사랑(습하고 연속성을 가짐)을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없음을 빠른 리듬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긋난 물욕주의가 실패하는 가정의 모습이 주제로 잘 드러났다. 자본주의 시대에 흐려지는 선과 악의 경계를 자로 잰듯 반듯하게 긋고 인물들의 갈등을 첨예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다룬 면에서 높은 완성도가 보인다."

"물질적 욕망덩어리인 부모의 공허한 공간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식들 공간의 대비,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무대의 구성 자체가 좋았다. 배우들의 동선과 움직임, 과장된 듯 큰 소품이 인상깊었다."

"이 연극의 묘미이자 약점이 톤 앤 매너라고 본다. 배우들이 빠르고 강하게 내뱉는 특유의 대사톤이 작품의 캐릭터성을 견고하게 해주지만, 중-후반부로 갈수록 몰입을 떨어뜨리게 하는 면이 있다. 주인공들과 시간의 흐름을 산발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은 긴장감과 새로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배우들의 연기는 아주 좋았다.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호흡한 것이 느껴졌다. 발성도 그 작지 않은 극장에서 관객 모두를 집중시킬 만큼 완벽했고, 무용 또한 적절했기에 보는 내내 지루함이나, 다른 생각을 할 만한 틈도 주지 않았다. 각각 맡은 연기와 동작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소화했고, 보는 나에겐 무척 공감되게 느껴졌다. 다만 모두가 같은 즐임말을 쓰는 짧은 말투는 조금 듣기에 불편함이 있었다."

마트료시카



극단 수

왜 모두 방관하고 있지?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건가?

자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회사인 '알파공장',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자살 시도는 계속 이어진다. 직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알파공장'의 모습은 마치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크기만 달라질 뿐 같은 모습이 반복된다. 자본주의에 발목을 잡힌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단일 폐곡선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일시 | 2020년 2월 21일(금) – 2월 27일(목)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90분 예정
티켓 | 전석 3만원

연출 | 구태환
극작 | 이미경
출연진 | 박윤희 성노진 황세원 김희창 김성철 노상원 오택조 김정아 유진희 조성국 백지선 박종호 조수인 박승희

작품 제목이기도 한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가 이 작품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구태환(연출) 조금만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서커스 형태로 닫힌 구조에서 희생자는 단순히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관리자들 또한 그들보다 상위 그룹에게 감시를 받고 있죠.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크기만 달라질 뿐 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자본주의에 발목을 잡힌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단일 폐곡선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작품 전개나 내용에게 사회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들이 많은데요. 이 작품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구태환(연출) 실제로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중국의 폭스콘에서 고용자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은유하는 데 서커스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막고 계속 공장의 일원으로 일을 시키려는 관리직들의 모습이나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묘하게도 서커스의 모습과 닮았다고 느껴졌습니다. 노동자는 늘 서커스의 광대처럼 위험한 동작을 반복합니다.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의 레일에서 내려올 수 없죠. 관리직들 또한 그들이 행여 일탈을 하거나 게으름을 피울까 호시탐탐 감시하느라 반복의 레일에 올라 서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커스를 운영하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서커스를 관람하는 이들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작품 속에서 자살하는 노동자를 막기 위해 기업에서 그물을 설치하거나 원숭이를 이용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극 속에 이런 소재를 등장시킨 의도가 무엇인가요?

구태환(연출) 자살을 막는 행위는 오로지 컴퓨터 생산량을 늘리는 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작품 안에서 노동자들이 하는 작업이나 관리자들이 감시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해서 이러한 소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갖는 의미는 뭘까요? 관객들에게 어떤 질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구태환(연출) 한국사회가 늘 기술발전과 과학발전 일변도로 국가와 기업이 운영되는 현실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며 씁쓸한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보는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위태로운 현실을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서커스나 우화처럼 그릴 예정입니다.







극단 수

2002년 창단공연 〈나생문〉을 시작으로 한국작품으로는 이강백 작가의 〈북어대가리〉, 박근형 작가의 〈삽 아니면 도끼〉, 홍원기 작가의 〈전설의 달밤〉, 최창근 작가의 〈13월의 길목〉, 고혜정 작가의 〈친정엄마와 2박3일〉 등의 다양하고도 참신한 작품들을 공연하면서 관객들에게 호평받으며 알려지게 되었다. 사무엘 베케트의 〈승부의 종말〉,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 모파상의 〈비계덩어리〉, 아르투러 슈니츨러의 〈라이겐〉 등 작품들을 올리면서 해외의 좋은 작품들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도 일조하였다. 다양한 희곡들을 무대화 시키면서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닌, 현시대에 맞추어 재해석하는 시도와 적극적인 실험성으로 꾸준히 달려왔다. 또한 창작극 〈이름을 찾습니다〉를 통해 창작공연의 잠재력까지 인정받았으며 연극과 현시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매 공연에 임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마트료시카'에 빗댄 의미를 좀 더 살렸다면 주제에 더 부합했을 것 같다. 기예를 연마하기 위한 일부 출연자의 노력이 엿보인다."

"심각한 주제를 우화적으로 전달하는 희극적 묘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작품이라고 여겨진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를 연상케 하는 희비극으로 발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여기에 좀 더 시간을 들여 기예를 연습하고 서커스와 같은 쇼 개념의 접목, 안무 등을 보완한다면 일반 관객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거운 주제를 쇼의 개념을 통해 우화적이며 풍자적으로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많으며, 서커스와 연극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스펙터클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드라마의 전개와 서커스의 양립에 관객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더 거대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작품 규모의 확장과 곡예를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쇼가 화려할수록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더 드러날 것이다."

"공연이 특정 대기업을 떠올리게 하여 현실의 노동자 문제를 연상시키지만, 결과적으로 극 중 갈등은 무의미해진다. 오히려 작품을 통해 자본주의라는 현실 사회의 속성을 드러낼 것인지 혹은 소비품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삶을 조명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주제가 보다 선명해진다면 현실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관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살이란 소재를 무겁지 않고 가볍게 표현한 것이 의아하면서도, 그럴싸하다고 느껴졌다. 첫 장면부터 자살률을 경쟁으로 삼는 것에 놀라면서도, 스토리 전개가 빠르고, 많은 의미를 담은 장면이 보여 관객 입장에서도 자살을 어둡거나 슬프게 바라볼 틈이 없었다. 자살의 범위를 직원부터 사장까지 넓히면서 피라미드 구조식의 현실과 현재의 삶을 풍자적으로 잘 표현해준 것 같아 공감되었다."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잔혹성과 이기심이 매우 잘 드러나 있다. 작품이 너무 친절하지 않을까, 느낄 수도 있지만 극이 전개될수록 여러 가지의 표현이 시도됐다. 관객들 모두가 하나의 주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면이 좋았다."

"연기와 안무, 의상과 무대까지 매우 훌륭했다. 여러 요소가 우수하게 작용하여 극의 견인력이 뛰어났다."

"배우들의 대사와 움직임 모두 훌륭했다. 각자가 가진 캐릭터를 생동감 넘치게 잘 살렸다. 배우들의 연기가 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 큰 공을 차지했다고 본다."

"소극장이 크다고 느껴질 만큼 공간 활용을 잘했고, 시각적인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 작품이 극장을 더 사랑하게끔 만들어 준 듯하다."

"현 시대의 위태로운 삶을 한 편의 서커스처럼 표현한 것은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아주 좋은 방향이었던 것 같다."

아랫것들의 위



극단 마고

버려진 세상,
멈춰있던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떨어진 물건은 쌓여 산을 이룬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산을 비집고 들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낸다. 산의 규모가 커지고 물건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차라리 원하는 물건을 찾을 때까지 서로 교환하기 시작한다. 이 때 물건을 가져오면 정확히 원하는 물건을 내어 주겠다고 말하는 '수집가'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와 거래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긴다. 시간이 흘러 수집가는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고 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사람들은 수집가와의 거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를 등쳐먹기 시작한다. 과연, 이해타산이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일시 | 2020년 2월 22일(토) – 2월 26일(수)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100분 예정
티켓 | R석 4만원 / S석 3만원

조명 | 조철민
의상 | 강기정
소품 | 권민희
출연진 | 정충구 오대석 정혜선 임윤진 민정오 박현승 문학연 박예지 김홍찬 김신원 염지우
드라마터그 | 이양숙
프로듀서 | 정민규
움직임 | 양은숙
무대 | 정승준
음악 | 김시율
작가 | 임진현
연출 | 박연주
조연출 | 강준영

〈아랫것들의 위〉는 독특한 판타지 장르의 연극입니다. 형식을 이렇게 정한 이유와 제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박연주(연출) '아래'와 '위'라는 위치상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작품 제목은 이러한 상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품에서의 '위'는 매우 절대적입니다. '나'라는 주체를 '아래'에 두고 대상을 '위'에 고정시킨 것입니다. 상대성이 절대성으로 바뀌는 순간의 찰나를 주목하고자 〈아랫것들의 위〉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는 상대성과 절대성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대성과 절대성이 공존하기보다는 하나로 치우친 극단적 가상세계를 상정하였습니다. 즉 상대성이 극대화되는 가상세계를 통해 어제의 보물이 오늘의 쓰레기가 될 수 있으며, 오늘의 쓰레기는 내일 누군가에겐 보물이 될 수 있는 가변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대성이 누군가의 절대적 가치 기준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억압되는 세계를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박연주(연출) 이 작품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벌어지는 잔혹한 행위가 과연 법과 도덕(양심)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거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양심에 의해 억압된 주체(나)의 욕망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희석되거나 배출되어 주체(나)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공간에 쌓이지 않고 순환되기에 공동체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감정의 공간에 쌓이게 되면 주체(나)는 극단적으로 나와 타인을 분리하여 생각하며 자신의 이득만 고려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강점입니다. 만약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성찰이 없다면 타인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는 이기적 행위가 반복되면서 최후에는 모두 고립될 것입니다. 반대로 '타인과 나' 사이의 경계를 풀고 양심 자체를 욕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악순환의 고리에서 서로를 구원해 낼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아랫것들의 위〉의 골자입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세상을 무대 위에 표현하는 과제를 두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무대와 의상 등에서 특별히 신경쓴 점이 궁금합니다.

박연주(연출) 우선 윗구멍에서 떨어지는 물건들을 어떤 것으로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버려진', '떨어진'이라는 개념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따로 '집'이라는 개념도 없이 물건들로 쌓여진 곳에 자신의 영역을 설정하여 살아갑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곳은 갖추어진 공간보다는 산처럼 쌓여진 물건들 사이사이에 뚫려진 공간들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비춰집니다. 의상은 위에서 떨어진 것들을 주워서 인물들이 입고 살아간다는 설정입니다. 이 세계는 극단적인 세계를 구현하고 있기에 지금 현대와 다른 질감적 차이를 부각하고자 합니다. 의상을 통해 현재의 시간이 부재된 극단적인 과거와 미래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관객들에게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박연주(연출) 버려지고 멈춰진 세계의 공허함 속에서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인간성이란 과연 무엇이며, 인간성이 파괴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만이 성찰을 할 수 있는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무대 위의 세계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서 나의 몫으로 남겨진 질문에 각자가 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낯선 감각의 경험을 통한 아날로그 판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랫것들의 위〉에 살고 있는 인물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밟고 있는지, 어떻게 땅을 지탱하며 서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성찰과 자신의 욕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부재된 상황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불완전한 걸음과 신체행위를 지녔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들의 모습이 낯선 감각으로 다가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관객들은 '낯섦'을 통해 이들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 마고

극단 마고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대지의 신 '마고할미'를 모티브로 연극계에 청량한 자극이 되고자 2004년 창단한 창작집단이다. 창단 이래 〈新시집가는 날〉,〈벚꽃동산-진실너머〉와 같은 다수의 대표작을 발표하여 국내·외 페스티벌에서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극단 마고는 동시대에 대한 호기심과 발칙한 상상으로 고전의 현대화 및 창작극의 활성화, 장르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실험하여 대중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자 한다.

"사업계획서에 작품에 관한 무대 구현 방식과 주제 방향은 나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본 공연에서는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뀌었다. 또한 실연 심의 자료가 없어서 관련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으나 시놉시스와 주제 접근 방식이 본 공연의 내용과 아주 달라서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인상이다."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설정은 좋았지만, 서사와 주제에 연결성 있게 활용된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도 주제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름 독특한 무대를 여러 각도로 활용하여 연극을 받쳐주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연출가는 앞으로 더 깊은 성찰과 공부가 있어야 하겠다."

"어른을 위한 동화/판타지 콘셉트에는 동의하지만 이에 호응할 만한 내용의 접근 방식과 무대 표현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아랫것들'이 속하는 세계를 흰 산을 중심으로 표현한 의도는 있겠지만, 장면별 전환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경사 무대로 움직임의 제약도 있었다. 또한 배우들의 대사나 신체 움직임이 다른 세상의 낯선 감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때론 어린이극에서 행하는 과장된 연기 스타일로 느껴진다.

"화자인 어린이의 시선에서 판타지의 세계에 집중하고 어른들의 부질없는 욕망을 강조한다면 어린이와 어른 사이의 위계적 서열이 뒤집히는 상황의 대입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 작품에서 안경 소년이 친구들과 돈가스를 나눠먹기 위해 요리법을 찾으러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이 여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디스토피아를 만든 어른의 모순을 드러내는 서사에 집중한다면 다른 등장 인물의 역할과 내적 동기가 단단해질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개인과 타인의 이익, 욕망과 희생(양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광활한 대지에 쓰레기만 가득한 가운데 사람들은 인간 본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줬다. '아래'와 '위'라는 상반된 개념을 사용해 서로를 향한 이해타산이 상반됨을 제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무대 완성도는 꽤 좋았다. 연기나, 구성, 무대장치는 너무 독특하고 멋졌다. 특이한 캐릭터들과 그들의 특징적인 안무도 극을 부드럽고, 호감가게 만드는 작용을 했고, 이벤트처럼 2층 무대를 이용하는 모습도 좋았다."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다. 모든 캐릭터들이 특이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은 연출의 의도가 보였다. 함께 행복하고 싶은 소년, 짝사랑, 원치 않는 곳에 와버린 사람,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의 모습에서 위아래의 상하관계와 더불어 상관관계를 보여주려고 했기에 많은 움직임이 첨부된 것 같다. 판타지 장르극이기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극을 이해하고, 소화하려 한 노력이 배우들의 합이 좋게 비춰졌다."

"모든 것들이 버려진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람들이 거래하고 뒤통수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서로의 목표가 서로에게 화살이 될 때 세상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상상하게 한다. 이 버려진 세상을 현실에 대입하면 시의적절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초반에 과한 연기가 많았는데, 일상 톤으로 접근하면 몰입도가 높아질 것 같다. 또한 중-후반부에서 관객의 집중을 사로잡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더 흡입력 높은 작품이 되리라 본다."



대신 목자



극단 물리

목자를 찾아 심연의 숲을 헤매다

동물원에서 '컹수'란 별명을 가진 한 늑대가 어린이의 팔을 물어뜯은 사건이 일어난다.
수사관은 부주의로 빚어진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의문점을 캐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컹수가 동물원을 탈출한다. 컹수에게 유난히 애착했던 사육사 유재가
컹수를 풀어 주었다는 의심을 받으며 집중 조사를 받는다. 유재의 고의성을
밝혀내려는 수사가 유재 어머니와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수사관은 유재의
인성에 흥미를 느끼며 유재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유재마저
사라져버린다. 동물원 직원들을 비롯한 유재와 관계한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유재를 유재로 알고 있었다.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 3월 15일(일)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100분 예정
티켓 | 전석 2만원

연출·작 | 한태숙
출연진 | 전박찬 서이숙 손진환 김은석 성여진 김도완 유승락
박수진

작품 제목 '대신 목자'에는 어떤 의미를 담았나요?

한태숙(극작/연출) 깊은 의미는 없습니다. 양을 이끄는 목자도 아니고, 목자를 대신할 만한 중요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주인공 유재의 어머니가 키우는 잡종개의 이름이 목자입니다. 하찮은 존재라도 그 생명으로 인한 인연은 귀하다는 역설을 담아내고자 정한 제목입니다.

배우가 연기하는 늑대 '컹수'라는 이름도 독특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태숙(극작/연출) 〈대신 목자〉의 '컹수'는 인간보다 더 유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늑대입니다. 작품을 쓰면서 여러 이름들을 불러 보았는데 '컹수'라고 부를 때 가장 깊은 느낌이 잡혔습니다. 커어엉! 하고 큰 소리로 울면 컹수의 진심으로 산이 진동할 것 같았죠.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컹수로 정했습니다.

배우가 늑대를 연기하며 동시에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연출할 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나 장면이 있다면?

한태숙(극작/연출) 〈대신 목자〉의 늑대는 동작을 하긴 하지만, 현실의 늑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간한테 애착하는 동물, 인간이 될 수 없어 슬픔을 느끼는 동물과 그 동물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고통이 느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극의 중요한 부분은, 주인공 유재와 늑대의 에피소드 너머의 배경에 있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희롱했던 유재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인생관, 유재를 수사하는 중에 인간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수사관의 심리변화가 예리하게 표현되는 지점이 극의 관건입니다.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한태숙(극작/연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잡목이 우거진 야트막한 산자락이 있는데, 토끼며 고양이가 많이 삽니다. 우연히 길고양이 한 마리와 자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 산책마다 만나던 길고양이가 며칠을 찾아도 안 보이더니, 어느 날 아파트 쓰레기함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애는 제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설 때마다 자신을 데려가라는 듯이 애처롭게 울곤 했는데 동물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렁이'라고 불렀던 그 고양이를 생각하며 극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물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육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대본을 마무리할 때 쯤, 늑대를 보러 동물원에 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관람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늑대가 우리 밖을 서성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다 해도 늑대들이 탈출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의 시선과 갇힌 공간에 적응하여, 원시성은 고사하고 동물원이라는 세계 외에는 다른 곳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외로운 동물이라고 자각하게 해주었던 동물들을 생각하며 〈대신 목자〉를 썼습니다. 자각이란 매우 소소한 동기에서 뜬금없는 사유로 인해 일깨워진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초현실적인 교감이 신화를 넘어선 관계에서도 가능하며, 인간은 그렇게 인간을 포기하며 다른 존재를 믿고 싶어 하는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인물들의 죄의식을 다루고 싶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한태숙(극작/연출) 극을 보고 각기 다른 느낌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 때문에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생각, 자신이 버린 존재를 떠올리거나, 반대로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극단 물리

극단 물리는 우주 만물, 세상 모든 미추의 근원과 현상을 소재로 말한다. 작가 정복근과 연출가 한태숙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로 동시대 관객과 연극 지고의 본질을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새로운 연출가의 등장을 응원한다. 1998년 〈레이디맥베스〉를 시작으로 〈나운규〉, 〈배장화 배홍련〉, 〈광해유감〉, 〈서안화차〉, 〈고양이 늪〉, 〈도살장의 시간〉, 〈맹목〉, 〈네바다로 간다〉, 〈하나코〉 등 현재까지 꾸준한 창작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인상 깊은 무대를 통해 인간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작의나 시놉시스는 구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연출과 무대 구성은 다소 추상적이다. 대사나 분장에 대한 관객 평가단의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공연에서는 잘 처리된 것처럼 보인다."

"진정한 인간다움은 어떤 것인가를 질문해 주는 연극이다. 영상과 조명, 무대와 음악이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선을 지켜가며 배우들을 빛내주었다. 쉽지 않은 인물 창조를 보여준 성여진 배우의 능력을 보여준 무대였다. 그로테스크한 인간 내면을 보여주었다."

"늑대인 '컹수'를 매개로 인간 군상들의 태도나 내면을 파헤쳐 보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으리라 본다. 현재 우리가 가지는 동물에 관한 보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등장 인물을 통해 사회와 가정의 관계에 대하여, 또 버려짐과 버림 등 죄의식에 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배우들의 훌륭한 대사 처리와 연기가 인상적이었다. 특히 배우의 늑대 연기가 인간과 늑대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해석과 의미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유재와 컹수 둘의 관계가 주제 면에서 부각되는데 비해 자주 등장하는 수사관의 의미나 의도를 읽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수사관 없이 동물원 직원들 간의 대립만으로도 지금의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이 흥미롭고 촘촘했다. 진부하지 않은 대사와 동물 소리로 들려주는 그들의 언어들이 배역마다 잘 녹아들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상상 속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었다."

"한 짐승에게 보내는 순수한 인간의 사과가 극 내내 진심으로 느껴졌다. 수사관이 인간의 이중적인 이기심을 대변하고, '컹수'와 내면으로 교감하던 유재의 존재는 짐승의 자유를 억압한 인간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 되묻는다. 관객들이 함께 고민하고 슬퍼할 수 있게 한 극본이다."

"초반부터 결말까지 휘몰아치는 전개가 객석을 장악할 정도로 높은 몰입도를 선보였다. 마지막에 컹수와 유재가 서로에게 위안받는 관계 또한 인상깊었다. 또한 아버지 역과 컹수를 동일시함으로써 자식을 상실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통함을 관통시키는 연출이 훌륭했다."

"뛰어난 연기 덕에 공연 내내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수사관과 유재, 그리고 모친의 연기가 작품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인간이 가둬놓은 곳에서 인간을 물고 달아난 늑대, 그리고 그 늑대를 대변하는 사육사의 이야기. 인간의 이기심과 잔혹한 잣대가 많은 것을 반성하게 한다. 억압된 존재에 대한 인간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작품 속의 잔잔한 유머 코드 또한 좋았다. 극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볍게 툭툭 내뱉는 수사관의 몇몇 대사로 숨을 돌릴 타이밍이 생겼다. 어떻게 이런 캐스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인공들이 역과 잘 어울렸다."

의자 고치는 여인



극단 물결

“이 세상에서 제가 본 남자는 그 사람뿐이었어요.”
이 여인의 삶은 숭고한 사랑인가, 어리석은 집착인가?
한 여인의 삶을 두고 펼쳐지는 사유의 장

부모와 떠돌며 의자를 고쳐서 먹고 살고 있는 소녀는 부모에게조차 애정어린 말 한 마디 듣지 못하고 외롭게 자랐다. 나무같은 삶을 사는 소녀 앞에 유리같이 반짝이는 소년이 나타난다. 소년의 미소 하나로 소녀의 세상이 밝아진다. 그 후로 펼쳐지는 한 남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벌어지는 배우들과 우리들의 논쟁. 우리들의 삶 안에서 평가되는 여인의 삶. 그 논쟁은 무대를 넘어 관객석까지 사유의 장으로 만든다.



일시 | 2020년 3월 7일(토) – 3월 14일(토)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100분 예정
티켓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기획 및 홍보 | 도상란 왕수희
출연진 | 김준삼 김충근 신서진 전필재 오주원 박상현 한은비
한주연 박상하 진여준 진영
드라마트루기 | 김유진
조연출 | 김지현 김세리
무대 | 이엄지
조명 | 정진철
음악 | 배승혜
원작 | 기 드 모파상(Guy de Maupassant)
연출 | 송현옥
안무 | 이영찬
액팅코치 | 나현민

기 드 모파상의 단편소설이 원작이자 모티브가 됐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재해석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송현옥(연출) 굉장히 가난한 아이가 신분이 다른 남자에게 평생 동안 돈을 주고 뽀뽀를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주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하기도 합니다. 남자에게 뽀뽀를 하고 돈을 주기 위해 심지어 도둑질까지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남자를 찾아가 뽀뽀를 하고 돈을 주고 도망갑니다. 당차고 의지가 강한 여자가 대가도, 조건도 없이 그저 그 남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흥미로우면서, 또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굉장히 복잡한 심정을 느꼈는데, 재해석의 포인트는 바로 그 여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대 위에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지 고민되었습니다.

의자 고치는 여인에서 '의자'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무대 장치에도 구조물이나 소품으로 비중 있게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송현옥(연출) '의자 고치는 여인'이라 하면 그 여인은 평생 많은 의자를 고쳐왔겠죠. 그 의자의 주인들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당시라면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의사, 학생, 구두 수선공…. 저마다의 성격과 수많은 인생이 담긴 의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는 어쩌면 그 모든 다양한 삶 자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고치는 행위는 인간의 '삶'을 고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대사보다 움직임들이 주를 이룹니다. 무용적인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송현옥(연출) 대사뿐만 아니라 신체 언어 또한 언어입니다. 배우의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뛰어넘어 감정이나 정서를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넘는 표현을 찾고 싶어서이지요. 덧붙여 말하자면 '메타적인' 것, 연극을 넘어서는 또 다른 표현법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르 간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또 다른 세계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설이 나온 시기와 현재의 애정관이 많이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던지는 특별한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송현옥(연출) 의자 고치는 여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고, 어찌 보면 환상을 쫓아 살았던 여인의 삶은 현대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삶의 방식과 반대되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와의 사랑이 결실을 맺건 안 맺건, 그를 사랑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에 만족하는 그 태도가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하게 자신이 선택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삶의 태도, 그 과정 자체가 의미일 수 있습니다. 허무의 반대는 허무와 상관없이 그 일의 즐거움, 그 일을 스스로 사랑하는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공연 속에서 무대뿐 아니라 객석에서 관객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형식을 택한 의도가 궁금합니다

송현옥(연출) 의자 고치는 여인의 이야기를 감상적으로 봐서 슬프거나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보편적이겠지만, '그 이야기를 보는 나'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메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여인을 어리석게 볼 것이냐, 행복하게 볼 것이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다면 '나는 그 중에서 어떤 편일까? 현실적일까, 낭만적일까, 나의 실제 삶이면 그 중 어떤 쪽일까'에 대한 관점을 관객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객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품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점과 참여가 극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 물결

극단 물결은 수행적인 공연 양식과 은유적이면서도 새로운 표현법으로 매니아 층을 개발하면서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 왔다. 2008년 창단되어 〈폭풍의 언덕〉을 시작으로 〈밑바닥에서〉, 〈5분간의 청혼〉, 〈돈데보이〉, 〈햄릿, 여자의 아들〉, 〈인형의 집〉, 〈오델로〉 등 매년 꾸준히 고전작품을 극단 물결의 시선으로 재해석, 현대화한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2009년에 초연된 〈밑바닥에서〉는 올해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개최되는 제 9회 고리끼 국제연극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초청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극단 물결은 고전 텍스트가 가지는 고유한 아름다움, 배우의 신체에서 나오는 조형미와 수행적 연기 같은 그간 연구해온 무대언어뿐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무대 언어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로 고전작품을 현대화하여 신체를 통한 무대언어 개발에 중점을 두었던 극단 물결의 이번 신작은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감각과 사유를 넘나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무대 언어를 만들고자 한다. 이런 새로운 시도 자체가 '극단 물결의 무대 언어', '극단 물결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작 소설 모파상의 〈의자 고치는 여인〉을 메타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석하여, 몸과 언어의 융합을 통해 은유적인 무대와 상징적인 몸짓을 잘 보여주었다. 준비 단계의 배우와 스태프들도 특별한 변경 없이 전문적으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냈으며,연출 및 무대 구성안 역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무용과 움직임의 적절한 조화를 꾀한 무대 연출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이번 작품을 공연한 극단 물결은 고전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무대 언어를 지향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본 공연도 오브제의 적극적 사용, 무용적 요소, 토론과 같은 다큐멘터리 방식의 사용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많은 요소들을 결합했지만, 비교적 수선스럽지 않고 무난히 작품이 완성된 점은 장점이다."

"아름다운 동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작품이면서도 사색적인 결말에 도달했다. 상황을 시각화하는 표현 방식이 삶에 관한 상징성과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행동 이면에 담긴 인물의 표정과 감정이 포착됐다."

"만약 적극적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극적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지금과 같은 대극장보다는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무용이나 음악이 잘 어우러져 있지만,토론의 강조가 이 공연의 실험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관객 개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효과를 고려한 수정이 필요하다."



"기드 모파상의 소설 〈의자 고치는 여자〉를 원작으로 삼아 역동적인 서사를 선보였다. 원작은 영미권에서 책이 출간 될 당시에 〈영원한 사랑〉, 〈기묘한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이번 연극은 그 사이의 간극을 잘 묘사한 듯하다."

"쇼케이스 때부터 가장 기대했던 작품으로, 이미지를 통해 시청각을 사로잡아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관객 참여가 도박 같았으리라고 본다.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는 얼마나 준비되어있는지 궁금했는데, 제4의 벽을 깨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몰입을 깨는 부분도 있었다."

"개인적인 선호는 현실적인 연기지만, 이 작품에선 이미지 연기를 모두 훌륭히 잘해냈다. 극 초반부터 긴장감과 생동감을 몰고갔지만, 중간에 관객 참여로 몰입감이 흩어지는 부분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 부분까지 극복하려고 노력한 점이 엿보였다."

"관객에게 고민의 시간을 주고, 행복과 불행을 선택하게 한 연출 의도는 좋았다. 그리고 열린 결말로 생각했으나 해피엔딩이었던 반전 같은 결말도 감동적이었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관객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단 공연전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여러 사람의 생각들을 배우들이 설명해주는 편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다."

"극장의 규모는 아주 적합했다. 구조 또한 너무 아름답고 상징적이고 잘 짜여져 손색이 없었다. 무대 전환이나 동선도 너무 좋았다. 이러한 무대 장치와 오브제들이 이 극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설명해주는 것 같았다."



Hit & Run — 시나브로 가슴에

Swan Lake; The Wall — 정형일 Ballet Creative

Body Rock — 미나유

新청 랩소디 — 라만무용단

군림 — 에스디아트엔코(Soo d Art & Co)

호모 파베르 — 언플러그드 바디즈(Unplugged Bodies)

여
마

오월바람 — M발레단

오월바람



M발레단

인간적 삶의 필수 조건인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그러나 자유를 억압당하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절대 위기의 순간 앞에 선 당신!
자유인으로서 당당한 죽음과 비굴한 굴종의
삶 중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발레 〈오월바람〉은 섬세하면서도 격렬한 군무와 인물의 감정에 집중한 표현방식으로 기존 클래식 발레 작품과는 차별화를 꾀한다. 드라마틱한 발레를 통해 역사적 아픔을 함께 나누는 동시에 인류의 화합에 대한 희망을 그려낼 예정이다.



일시 | 2020년 1월 11일(토) – 1월 12일(일)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65분 예정
티켓 | R석 3만원 / S석 2만원

부예술감독 | 민혜진
출연진 | 윤전일 박예은 정영재 김순정 김지안 이상로 이진영
김경록 김우찬 김정연 박예원 박정빈 박종선 박하빈
신대륙 신상은 안수빈 이준구 임진환 정하은 지호용
최혁준 홍예림 김성수 김현진 신우진 여소율 김아윤
무대 | 황진성
조명디자인 | 김연수
의상디자인 | 김인옥
조연출 | 백민관
기획 | 김수형
안무 | 문병남
작곡 | 나실인
연출 | 황진성
조안무 | 민수경
대본 | 임오섭

발레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을 만드셨는데,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문병남(안무가) 80학번으로서 당시 5.18사건을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언젠가는 꼭 발레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모티브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작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참고하셨나요?

문병남(안무가) 광주 5.18 사건은 제가 어렸을 때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경험이 크게 와 닿았기에, 제 기억들을 꺼내어 되새기며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의 영상과 책자, 그림 등의 자료가 많이 있어 참고했습니다. 본 무대에서는 안무 외에도 제가 경험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무대에서 잘 구현해보고자 최루탄을 포그머신, 헤이져머신 등으로 실제와 같은 느낌으로 연출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문병남(안무가) 무엇보다 '5.18정신'을 많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5.18정신이 꼭 혁명이나 시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단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을 이 작품으로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소 잊힌 우리의 아픈 역사를 드라마틱한 발레로 전달함으로써 그 역사적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쇼케이스 당시에는 '5.18=8.15'로 가제를 정하셨다는데 그렇게 정했던 이유와 〈오월바람〉으로 제목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병남(안무가) 5.18 당시 억압받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이 마치 일정강점기 때, 8.15 광복만을 기다리던 국민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에 그렇게 처음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5.18'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을 초래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고, 결국 조금 더 부드럽고 평화적인 제목인 〈오월바람〉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M발레단

M발레단은 '한국발레의 정체성 구축'이라는 모토를 세우며 창단되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발레 레퍼토리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감성과 삶을 극적으로 표현해내는 드라마발레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2019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을 통해 선보이는 〈오월바람〉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발레 레퍼토리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이 작품의 기획 의도가 '발레로 보는 시대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측면에서 작품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출연진은 완결성을 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시대를 함께 느끼고 공감하게 만드는 '발레로 보는 시대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흥미로운 시도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용의 넌버벌적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구성과 움직임의 변형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듯하다. 이를 위한 음악, 영상, 무대, 의상과의 협업적인 부분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제목 〈오월바람〉의 '바람'은 'Wind'와 'Wish'의 다의적 표현이다. 쇼케이스까지의 제목 〈518=815〉에서 변경된 것을 보면 민감한 정치적, 역사적 문제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이 읽힌다."

"쇼케이스에서 계획한 의도와 구성 등은 공연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쇼케이스의 경우 이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어 조금은 평이하게 이해될 수 있었는데, 공연에서는 기승전결을 통한 서사구조와 상징적 상황 묘사 속에서 의미를 배가시켰다."



"역사적 사건에서 인간의 순수한 사랑과 완전한 자유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무용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

"무대 연출에서 여러 시도를 다양한 변화를 통해 느끼게 해주었다. 게다가 의상을 자주 갈아입어 볼거리도 많고 다채로워 지루함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연출이었다. 특히 주인공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인상적이고 아름답게 연출되어 감정을 고조시켰다."

"무용수들은 좋은 기량을 보여주었다. 격렬하고 난이도 높은 안무에도 끝까지 감정선을 놓치지 않고 무대에 몰입하는 혜연 역의 무용수가 매우 돋보였다. 쇼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연기, 향상된 기량을 보여주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발레극으로 담아내고자 한 시도를 높이 평가한다. 고전 발레 외에도 이러한 창작극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신선했다. 앞으로도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신선한 시도들이 많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민주화항쟁이라는 한국적이고 역사적인 소재를 다루는 만큼 의상이나 연출에도 이런 점을 반영한다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다."

호모 파베르



Unplugged Bodies

인간의 욕망과 인류의 진화를
도구의 인간을 통해 들여다 본다!

안무가 김경신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호모(Homo)'시리즈 중 하나로 인간의 본성을 앙리 베르그송에 의해 창출된 '도구의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작품이다. 인류의 현재 자화상을 그리는 작품으로 인간의 욕망과 인류의 진화를 도구의 인간을 통해 들여다본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본성(유희하는 인간, 음악, 도구를사용하는 인간 등)을 춤, 움직임과 연계하여 풀어낸 작품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들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을 그린다.



일시 | 2020년 1월 11일(토) – 1월 12일(일)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60분 예정
티켓 | R석 3만원 / S석 2만원

출연진 | 최우석 이현경 김희정 심재호 양승관 장라윤 한진욱 전현수 정상효
음악 | 김경신
의상 | 배경술
프로듀서 | 박신애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 한채령
안무/연출 | 김경신
조명 | 류백희
무대 | 박민호
무대디자인 | 조일경
소품 | 이윤수

〈호모 파베르〉 작품의 모티브와 창작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주신다면?

김경신(안무가) 작품의 모티브는 도구와 인간, 인류의 탄생 및 진화, 도구의 전쟁과 전쟁의 도구 그리고 인간을 대신 할 미래의 도구로 나누어집니다. 작품 〈호모 파베르〉는 프랑스의 철학가 앙리 베르그송에 의해서 창출된 용어 '호모 파베르'를 인용하여 인간의 본성을 도구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움직임과 사물을 통한 이미지 창출로 탐구하고 묘사함으로써 현 인류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주제의 선택은 인간의 몸을 탐구하는 전작 바디 시리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몸과 움직임에 대한 고민들과 리서치 과정에서 인류의 탄생과 문명의 역사 속에서 함께해 온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한 궁금증이 시작되었고 지금의 호모 시리즈를 창작하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전작인 〈호모 루덴스〉 등 이러한 바디&호모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경신(안무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몸에 대한 탐구에 집중했었던 바디 시리즈(언플러그드 바디즈, 바디 어쿠스틱)에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 만들어 낸 인류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시리즈 창작물을 통한 깊이 있는 고민과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안무 및 연출하는 것이 창작자로서 가치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디 시리즈에 이어 호모 시리즈, 즉 인간탐구에 대한 창작물을 통해 완성도 있는 작품 속에 각 시리즈가 가지는 표현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담고 싶었습니다. 지구와 인류를 움직임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들여다 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창작을 호모 시리즈를 통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품 안무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썼던 포인트가 있다면?

김경신(안무가) 움직임과 일상의 사물이 도구화라는 과정을 통해 인류의 진화와 욕망 그리고 문명의 탄생을 그리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작품 〈호모 파베르〉에 나타나는 움직임과 이미지는 사실적인 표현과 더불어 김경신의 움직임, 어휘가 가지는 독창성의 조화입니다.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묘사 방법을 탐구하는 동시에 작품 연출에 있어서 예술성과 감 각적인 전개 방식의 균형이 창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벨트를 연상시키는 무대장치 등은 무엇을 의도했는지 궁금합니다.

김경신(안무가) 작품에 등장하는 테이블을 활용하여 컨베이어벨트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면으로 대량 생산의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지구라는 관점에서 시작되는 도구의 인간을 묘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자 했나요?

김경신(안무가)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도구들을 통해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구들을 빠르게 만들고자 합니다. 아직 "쓸 만한" 도구들은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지구를 병들게 합니다. 또 인간의 욕망은 남의 것을 빼앗는 도구를 만들어내고 인간 자신이나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을 대체할 그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도구의 인간을 바라본다면 인류의 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전쟁의 형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작품 〈호모 파베르〉는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인류를 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미래 인류의 모습을 내다보려는 작품인 만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도구들은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가 병들고 있는 측면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언플러그드 바디즈(Unplugged Bodies)

안무가 김경신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무용단으로 2014년부터 컴퍼니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안무가 김경신은 2005년부터 런던에서 활동하며 Frederick Addaie, Dance Exchange(버밍험) 그리고 Rashpal singh bansal 등의 프로젝트 공연에 참여하였으며 2006년 세계적인 무용단 Hofesh Shechter와 영국 웨일즈의 국립무용 단체 Diversions Dance Company, 2007년부터는 Russell Maliphant Company에서 2009년 귀국 전까지 활동했다. 김경신은 런던 The Place에서 주최하는 안무자 경연대회 The Place Prize에서 2008년 수상하여 그의 안무작 'Oblivion'의 지원금을 수혜 받았다. 2014년 영국인 안무가 Freddie Opoku-Addaie와의 협업작업 'Unplugged Bodies'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언플러그드 바디즈로 무용단을 결성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음악을 작곡하고 편곡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를 활용한 움직임 탐구의 작업을 추구함으로써 사물과 신체의 관계, 신체와 신체의 관계를 움직임의 대화로 묘사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언플러그드 바디즈는 2016년 한/영 프로젝트 리서치에 참여하여 2017년 영국 런던의 Dance Umbrella Studio Saturdays에 〈Ordinary Stranger〉를 선보였고 런던 The Place의 Robin Howard 극장에 코리아 댄스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작품 〈Ordinary Stranger〉를 발표했다. 또한 2019년 MODAFE(모다페)의 폐막작 〈Homo Ludens〉로 초청되어 한국-영국 협업 작업으로 공연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작품은 안무자가 연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호모 시리즈의 하나로 일정한 계획 안에서 작품이 구성되었고, 공연도 완성도 있게 구현되었다."

"의도하고자 한 바를 충실하게 계획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전체적으로 여러 오브제가 등장하는 등 상징적 표현을 통해 관객 이해도를 높이려 하였다. 구성에서도 전체적으로 밀집감을 보였고, 무용수들의 기량도 일정한 수준 속에서 작품에 집중하고 있었다."

"인간의 욕망과 인류의 진화라는 철학적 주제를 비교적 어렵지 않게 풀어냈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점에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현대무용이 지니는 추상적 표현에 머물지 않고, 여러 연구를 통해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일반 관객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듯하지만, 인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연속성을 가지고 다듬는다면 새로운 표현 방법 속에서 가능성을 열 수 있을 듯하다."

"무대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리어 스테이지, 발코니까지 사용하며 흥미로운 장면을 만들어냈다. 무용수들의 움직임 또한 오래 호흡을 맞춰온 만큼 안정적이며 거침이 없었다. 모차르트 레퀴엠, 쇼스타코비치 왈츠를 적소에 사용하며 시너지를 끌어올렸다."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를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 인간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존재가 주는 위협, 쓰레기 더미, 전쟁을 상징하는 장면 등은 안무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인상적이었다."

"공연은 장면 장면마다 모두 무대 미술이 적절해 시각적인 쾌감과 만족감을 주었다. 효과적인 무대 연출과 공간 활용, 역동적인 음향과 조명활용이 공연을 꽉 채운 느낌을 주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을 주제로 도구를 사용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설명하고 더 발전된 도구를 발명하게 되는 과정과 마침내는 도구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 인간 사회를 극명한 대립으로 보여줘 재미있었다."

"역동적 조명과 연출은 인상적이었다. 공간감의 변화와 상하좌우로 작동하는 조명이 무용수들의 동작과 동선에 입체감을 한층 더해 주었다."

"인간 탐구, 도구로서의 인간이라는 소재가 참신하고 4차 산업혁명과 AI로 인간의 노동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기계의 위협을 받는 현실에서 시의성 있게 다가왔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인간성은 무엇인가, 고전적인 화두를 참신하게 잘 연출했다."

"인간에 대한 오랜 역사와 인간 고찰을 한 추상적인 주제를 구체화해 나가며 도구와 무용으로 만들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텐데 놀라울 정도였다. 다양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독특한 참신성은 최고였다."



군림



에스디아트엔코(Soo d Art & Co)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 속 군림들의 이야기

마치 왕처럼 사회적 계급과 계층을 구분 짓는 사람들과 당연한 듯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사람들. 비난받아 마땅한 양면성. 국가의 권력 구조와 지배자의 역할.
군림하고 지배하고 짓밟으며 존중하지 않는, 지배당하는 자를 비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회 속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겹겹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사람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으며,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일시 | 2020년 2월 1일(토) – 2월 2일(일)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60분 예정
티켓 | R석 3만원 / S석 2만원

출연진 | 고흥열 김주현 김상각 양진영 임소정
윤일식 문형수 박상준 정수동
안무 | 정수동
의상 | 최인숙
음악 | 최혜원
드라마트루기 | 장지영

‘우리 사회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을 안무로 풀어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디에서 실마리를 얻었나요?

정수동(안무가) 최근 국내에서는 다양한 그룹 속에 보이지 않던 갑을 관계의 속내들, 존중받지 못할 관계들이 이슈화되며 드러났습니다. 특히 눈에 띈 기사들 중 사회 안에 기부 문화 속 시혜자와 수혜자와의 내용을 다룬 것이 있었습니다. ‘군림하는 자 – 수혜자’의 역할.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한 그들의 거짓 행동들. 수혜자인 아이에게 기부하는 시혜자. 아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권력자들의 행동과 눈에 보이는 기부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군림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무용을 풀어내면 어떨까라는 질문이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무용계라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선택과 행동들을 했었는지 되돌아보며 작품의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핵심 소재로 ‘롱패딩’이 등장합니다. 롱패딩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주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수동(안무가) 우리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지닌 채 한 사람으로 생존해가며, 사회의 구조 속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존, 보호,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요? 결국은 스스로를 가꾸고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롱패딩’은 추운 겨울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사물입니다. 이에 착안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롱패딩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롱패딩으로 싸매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 ‘대중적인 옷’,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으로서 일상 속 가깝고 친근한 ‘롱패딩’의 소재를 작품의 오브제로 삼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안무 구성에도 무용수들의 모습과 패딩과의 관계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립하고 대비되는 구조로 안무구성에 활용되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요소로 입기도 하며, 집의 형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로테스크적인 요소들이 상징화되어 무대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리서치 과정을 진행해서 작품에 주요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정수동(안무가) 사건, 사고, 현장의 모습들이 담긴 사진 스크랩들을 취합하여 그 상황에 담긴 몸을 발견하고 현재 우리들의 몸으로 채집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몸들을 무용수들의 몸을 통해 재현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건은 무대화되는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무용수의 개개인의 기억들을 유추하여 과거의 기억은 현재에 어떻게 변하고 남겨져 있는지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몸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사건 속 ‘몸’을 통한 리서치 과정은 안무에 주요한 부분으로 작용했습니다.

공연 중에 얼굴 없는 롱패딩이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정수동(안무가) ‘보이지 않는 존재’, 즉 우리 삶 속에서도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면에서 지휘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착안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권력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군림하는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눌한 모습, 갸우뚱하는 귀여운 모습들 그리고 바닥에 눕거나 서있으려고 하는 오뚜기의 모습. 그 모습을 높이의 대비를 주어 유니크하게 표현하려 시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생동감 있는 무대 소품을 만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있으신가요?

정수동(안무가) 최인숙 의상디자이너와 무용수가 움직이는 역동성과 확장성에 대해 고민하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재질을 바꿔가며 속이 보일 듯 보이지 않게 비닐의 질감으로 해보기도 했으며, 롱패딩이지만 한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공간의 활용과 높이를 주기 위한 패딩의 모티브를 가져가되 보다 그로테스크적인 요소들이 반영되길 바랐습니다. 무용수가 입는 의상과의 색 대비에도 신경써 화려한 원색의 의상과 대비되는 패딩의 색을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지금의 오브제가 탄생했습니다.





에스디아트엔코(Soo d Art & Co)

2014년에 창단했으며,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정수동을 주축으로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창작 및 협업을 모토로 활동한다. 순수한 ‘몸’이 마치 대화를 하듯 움직임을 언어로 풀어내며 그 언어는 우리의 머릿속을 ‘상상’하게 만들고 마음 속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주제 의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흔적이 잘 나타난다. 쇼케이스 관객 평가단에서는 주제가 가지는 추상적 표현 혹은 지배 관계에 대한 대비가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시적 변별성을 가지고 표현한 노력이 엿보였다."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이루어졌고, '패딩'이란 오브제를 통해 군림을 표현하려 한 점에서 참신성이 우수하다. 제목과 주제 의식은 명확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참여자 역량은 전반적으로 고른 수준을 드러냈고,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주제와 무대 미술, 오브제 등은 일반 관객의 관심을 높일 수 있어 보였다. 출연자와 제작진의 능력이 최상위 수준이므로 텍스트를 보다 명료하게 정리하고 그에 따라 작품을 보완한다면 기대되는 작품이다."

"동시대 사회적 담론을 담아내면서도 움직임의 연결성 등을 통해 표현에서 유려한 모습을 보였다. 오브제를 통한 상징성은 일반 관객도 그리 어렵지 않게 수용할 정도로 잘 표현되었다. 좀 더 보완한다면 대표 공연 레퍼토리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

"〈군림〉은 6개의 장면이 의도한 각각의 서사보다 작품 전체가 표상하는 인상을 읽어내는 것이 안무 의도를 파악하기 수월한 작품이다.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점은 대중성 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하다. 무용수들의 기량이 빛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에서 발전이 기대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현대의 계급사회를 통한 갈등 양상을 기승전결의 구조로 잘 풀어낸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런 상징성을 '패딩'이라는 오브제로 풀어낸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자율적이면서도 제한적으로 표현되고, 억압적 구조에 대한 표현은 미시적이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났다."

"좀비처럼 걷는 무용수들이, 발을 들어 옮기는 동작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안무 디테일이 우수했다. 겹겹의 메탈릭 장막들을 사용한 무대 연출도 좋았다. 마지막에 패딩을 입은 남자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워지며 막이 내리는 마무리도 인상적이었다."

"패딩의 크고 작은 모양새와 다양한 컬러 등이 시각적으로 흥미로웠다. 쇼케이스 때보다 무용수들의 의상이 다양해지고 화려한 군무가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조명의 각도, 색깔, 위치 그리고 승하강의 투명한 레이어드 스크린 등 미니멀한 무대 미술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무용수들이 여러 번 객석을 향해 정면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순간에 표정과 시선이 잡히곤 했는데, 작품에 설정된 인물에 몰입한 그 모습이 관객의 공감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군림하는 왕자처럼 형상화된 패딩의 활용이 매우 참신하고 시의성 있게 느껴졌다. 모두가 개성을 추구하는 몰개성의 시대,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린 롱패딩 유행이 겹쳐지기도 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었다."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의 갑질 논란과 갑을관계를 다루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패딩을 통해 타인에게 갑질을 하거나 군림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新청 랩소디



라만무용단

심청을 통해 바라보는 현실, 몇 백년 전과 지금의 데자뷰
형식은 달라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사람들의 위선과 부조리
이 시대 죽음으로 치닫는 새로운 청, 오늘 그 청은 또 누가 될까?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다원 사회에서 발생하는 높은 자살률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고전 '심청'을 재해석했다. 이 작품은 자유에 대한 헌정이다. 제목 중 '랩소디(rhapsody)'를 사용한 이유다. 특히 고전 소설, 판소리, 창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확장된 고전 〈심청〉에 근간을 둔다. 고전에서 묻고 오늘이 답하는 구조다. 즉, 무용 '新청'은 '심청(沈淸)'을 재해석해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고,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일시 | 2020년 2월 14일(금) – 2월 15일(토)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70분 예정
티켓 | R석 5만원 / S석 3만원

출연진 | 김대현 라명숙 정길만 이고운 전보현 서상원 이성희
김유연 남수빈 김유진 백승민 신한서
대금 | 조병주
소리 | 서정금
조명감독 | 주영석
영상감독 | 이남훈
의상 | 이미현
기획홍보 | 임은영
안무/연출/대본 | 정길만
작곡 | 조정수
각색 | 이주영
무대디자인 | 이은석
무대감독 | 서정민

심청전을 재해석하여 담고 싶었던 주제는 뭔가요?

정길만(안무/연출/대본)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하고 말하기 꺼려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무서운 질병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살입니다. 저는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과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함께 중첩시켜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위선과 부조리 속에서 삶의 끝자락에 서서 삶과 죽음의 순간을 오가며 죽어가는 수많은 '청'이 존재합니다. 작품〈新청 랩소디〉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자살이라는 질병을 과거에 비추어 미래로 다시 잉태하기 위한 치유의 헌정을 담아냅니다.

작품의 모티브나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정길만(안무/연출/대본) 고소설 〈심청〉은 효심을 증명하고 죽은 '심청'이 주인공입니다. 설화나 구전문학은 그 시대 정서와 추종하는 사상이 짙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의 다변화, 다문화 시대 환경에서 고소설 〈심청〉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바라 볼 것이고, 또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 것일까?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죽고 싶지 않았던 '심청'의 죽음과 떠나보낸 자의 삶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보며 '인간애'라는 공통분모를 조형화시켜 정서적 동질감을 이끌어내고, 미학적 감동으로 귀결하고자 했습니다.

무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길만(안무/연출/대본) 그동안 한국무용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독창적 안무 기법을 도입해 다양성과 방향성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무용예술을 통해 사회적 치유와 상생에 대해 고민하고 천착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나름의 해결 방식은 오늘날의 문제를 과거에 물어보고 재해석함으로써 미래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주어진 의무는 치유와 상생을 고민하며 관객과 함께 감동의 나래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가족애와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를 치유하자는 메시지를 담아냈고, 무용예술이 사회적 이슈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무대, 의상, 안무 등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을 짚어주신다면?

정길만(안무/연출/대본) 한국무용 기반이지만 무대 공간에 모든 가능한 움직임과 연출을 열어놓고 몰입해왔기 때문에 컨템포러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은 물론이고 연기, 대사, 마임, 연주 등 다양한 장르와 오브제를 결합하고 해체하는 과정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제 전달을 위해 신경쓴 요소나 장면이 있으신가요?

정길만(안무/연출/대본) 〈新청 랩소디〉에서는 고전이 그랬던 것처럼 심청이 결국 그 사회에 의해 타살된 모습을 오늘날 현실에 투영하고자 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한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왜 그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을까'라는 질문과 죽음 앞에서 갈등과 후회, 공포와 저항, 그리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시대사적 분위기와 미풍양속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연출은 미디어 파사드로 채운 바닥과 효과적인 무대세트, 배우의 이중적 결합을 구현하여 고전과 현실이 하나의 가변현실에서 문제의식을 고취해봄으로써 삶의 휴머니즘을 사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라만무용단

라만우용단은 기존의 공연 형식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과 방법, 소재들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한국무용의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8년 안무작품인 〈반쪽 담긴 달〉, 〈마리아의 서울〉부터 시작하여 2018 서울무용제 참가작 〈디아스포라-건너지 못한 강〉, 2019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新청 랩소디〉까지 언제나 획기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지향하며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고전 심청전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장르적 융합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현대사회에 대한 무거운 비판의식에 집중했다."

"전체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게 계획이 이행된 듯하다. 심청과 현대사회, 특히 자살 문제를 연결한 의도는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시대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주제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도 존재한다."

"고전 심청을 현대로 가져와, 심청의 죽음과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죽음을 연결해 결국 개인의 자살이 실은 사회적 타살은 아닌지 조망해보겠다는 발상이 신선하다."

"우리 전래 설화 혹은 문학을 소재로, 전통과 현대를 만나게 하려는 시도 자체로는 좋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현대 관객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고전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과 주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 현대성을 부여하기 위한 치밀한 연구와 대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심청전을 현대사회와 연결해 실존적 의미를 깊이있게 파헤쳤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의 이야기와 지금의 상황이 교차되어 흥미를 주었다. 전체적인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좋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되었다."

"음악이나 무대 구성은 작품에 잘 녹아들었다. 이야기 구성을 조금 더 발전시켜 재공연한다면 더 짜임새 있는 공연이 될 듯하며 고전의 재해석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듯하다."



"심청의 죽음과 현대인의 자살 심리를 대비시켜 두 남성(심학규 vs 작가 남편), 여성(심청 vs 현대의 청)의 춤이 따로 또 함께 만드는 내러티브가 흥미롭다."

"과거 고전을 탈피해 심청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가가 관건인 작품에서 단락을 나누어 잘 표현하였다. 현대의 심청을 통해 자살이나 청년의 고민을 부각하는 한편, 고전 심청은 사회의 강압과 이기적인 아버지 심봉사에 의한 타살로 나타내는 구성도 탁월했다."

"무대 의상과 다채로운 오브제들을 활용한 연출이 돋보였다. 전반적인 연출과 안무의 완성도도 좋았다. 조명, 무대 장치, 모빌 같은 공중 오브제, 국악, 발레, 현대무용, 해설, 영상 등 매우 다양한 시도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무용에서는 흔하지 않은 대사와 해설이 나오면서 추상적인 개념까지 표현했다. 위에서 내려오는 사각 틀과 창틀, 계단 모양의 집 등 다양한 장치들이 나와 놀라웠다."

"무용의 수준도 아름답고 고뇌하는 모습도 잘 표현됐다. 군무와 독무를 섞어 다양한 시도를 하고 몸의 움직임은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고전 심청을 변형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만든 구성도 특이하지만, 주제 또한 자유와 죽음, 사회의 문제, 부모의 가치관까지 보여줘 놀라웠다. 심청의 죽음을 사회의 강압에 의한 타살로 해석하는 문제 의식도 파격적이고 참신하다."

Body Rock



미나유

나는 삶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데리고 자꾸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시대 나는 누구인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각자 깊이 있게 고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2월 19일(수) – 2월 20일(목)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60분
티켓 | 전석 30,000원

무대감독 | 박민호
조명감독 | 김재억
출연진 | 김성훈 김지형 성스런 손나예 이인수
임종경 정건 김동일 차상원
안무 | 미나유
음악 | 강태원
무대 | 최명현
의상 | 최인숙

작품의 모티브, 또는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유정옥(안무감독) 현 시대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존재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각자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현 세상의 속도에 발맞춰 스스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 인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삶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무용 장르인데도 힙합 공연을 보는 듯한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한 연출 의도가 있나요?

유정옥(안무감독) 이번 작품의 제목은 〈Body Rock〉입니다. 'Rock'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음악의 Rock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ock은 사전적 의미로 바위라는 뜻도 있고, 곤경 혹은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시키다, 쇼크를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듯 Rock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하고 있지만, 그 의미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Rock을 신체로 드러내보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무용수와 움직이면서 디제잉을 하는 무용수가 함께 어우러지며 풀어내는 〈Body Rock〉의 한 장면을 보다 실험적이고 색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힙합의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채로운 음악이 활용됩니다. 사운드 디자인에서 고민한 점은 뭔가요?

유정옥(안무감독)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파바로티가 부른 마이웨이를, 어느 날은 빗소리만 녹음된 음악을, 또 어느 날에는 여행을 했을 때 우연히 저의 발길을 잡았던 집시인의 음악을. 그렇게 저는 음악을 통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서도 그곳의 음악을 수집하고 들으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음악 선택에 있어 다채롭게 연출하려고 고민한 적은 없지만, 무용 작품을 통해 저의 삶에 대한 철학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선택하게 된 음악들입니다.

움직임 외에도 마이크로 랩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파격적인데, 이 장면을 위해 따로 연습하고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을까요?

유정옥(안무감독) 저는 이 장면을 색다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을 연습하는 동안 무용수들과 함께 모든 방향성을 열어놓고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소재의 사운드 시스템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Rock을 관객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통해 들려지게 되는 〈Body Rock〉으로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미나유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객원 안무가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나유(유정옥)의 작품 속 춤은 미니멀리즘적 연출로 단도직입적인 메시지와 '일상과 예술'의 간격을 줄이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다. 심리적 갈등을 전문적 몸짓 언어로 풀어내고, 주제적인 특징을 포스트모던하게 접근하는 기교를 통해 미적 공감대를 완성한다.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 〈2015〉는 2016년 제3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무용부문 최우수작을 수상하였고, 2017년 국민대학교 예술관 대극장에서 초연된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선정작 〈구토〉는 "인간의 존재를 다채로운 움직임 및 이미지로 형상화해 실존의 부조리를 현대의 감성으로 밀도 있게 구현했다"는 호평과 함께 2018년 한국춤비평가상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안무적 특징은 감정과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간결함과 생각을 복잡하게 유도하거나 지배할 틈을 주지 않는 명료함이며, 이 두 단어를 키워드로 오늘날까지 호평받고 있다.

"사전 계획이 무리없이 진행되었으며, 제작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쇼케이스에서는 대중성을 지향한 작품임에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하였는데, 본 공연에서는 기승전결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드러내었다."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모아 완결된 주제 의식을 전달하려 했다. 음악을 통해 여러 사회적 관계성을 풀고자 한 점에서 새로움과 안정감을 주었다. 전체적으로 무용수 등 참여자들이 고른 수준의 역량을 유지해 우수성이 드러났다."

"무용수들의 감정 표현의 연결성이 각 옴니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그 결과 관객에게 긴장감과 몰입감을 부여한다. 음악과 조명, 간결한 무대 구성은 몰입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각 섹션마다 다른 구성을 통해 주제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재미있고, 전반적인 구성도 괜찮았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 또는 난해한 면이 있어 몰입도가 약해지는 면이 있었다. 모호하고 거친 부분을 잘 정리한다면 흥미로운 현대 무용작품으로 레퍼토리화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음악적 요소를 토대로 역동적인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면서 현대 사회의 실존적 양상을 풀어내었다. 장면, 장면 분절되어 있지만, 하나의 주제의식으로 응결되는 과정이 관객과 소통되었다. 무용수들의 대사를 통해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소통하는 부분은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세트의 조합이 수시로 바뀌며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해 인상적이었다. 세계 각국의 음악이 나와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며, 극적 구성이 뛰어났다."

"블록들을 설치한 무대와 이를 활용한 안무가 인상적이었다. 본 공연에서는 무대 완성도 더욱 정교해져 인상적이었고,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안무들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놀라운 연출로 짧은 시간에 전세계를 여행한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로 무대의 오브제나 세트, 조명 등이 다채로웠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히잡을 통해 관객을 중동 문제로 안내하는 장면에서는 관객석을 향해 조명을 비췄는데, 놀라운 경험으로 기억되었다."

"에너지 넘치는 무용수들이 인상적이었다. 강하면서도 유연하고 표현력과 에너지가 기분을 좋게 했다. DJ 테이블을 들고 무대를 배회하는 연출과 노스탤지어를 환기하는 음악 등도 이야기 흐름과 잘 어울렸다."

"존재의 의미, 존재들이 서로 어떻게 공존하는지 또는 불화하는지 인간 내적/외적인 갈등과 하모니를 잘 표현했다. 오브제들과 안무가 신선했고, 참신성과 시의성도 돋보인다."

"전반적으로 음악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다.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잘 전달하는 안무와 음악이었다."

Swan Lake; The Wall



정형일 Ballet Creative

금단의 장벽을 허무는 자유를 향한 날개짓!
'백조의 호수'가 현실사회의 예술적 상징으로 재탄생한다

선악의 대립과 낭만적 사랑으로 대표되던 고전 〈백조의 호수〉가 진영과 분단, 대립과 통일의 현실사회를 예술적으로 상징하며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왕자와 오데트의 낭만적 사랑은 진영을 뛰어넘는 순수의 갈망으로, 악의 상징인 마법사는 진영을 가르는 외형의 무리이자 내면적인 심리로, 또한 비극적 정조는 진영 속에서 대립하며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상징화된다.



일시 | 2020년 2월 28일(금) – 2월 29일(토)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50분 예정
티켓 | R석 3만원 / S석 2만원

출연진 | 김에스더 양영아 이은혜 김수희 Reina Onuma 서송희
양희재 전효진 이아영 김예담 이준구 박종선 김경록 정대성
안무/연출 | 정형일
드라마트루기 | 안경모
무대 | 김대한
음악 | 장석규
의상 | 배경술

낭만 발레 대표작 〈백조의 호수〉를 모티브로 분단 국가의 현실을 그려냈습니다. 발레 〈백조의 호수〉와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요?

정형일(안무/연출) 낭만 발레의 대표작인 원작 〈백조의 호수〉는 인간 세계와 백조 세계의 대비, 순수한 사랑의 갈망과 악의 유혹을 대조적으로 그리며, 발레의 우아함과 낭만적 서정을 춤의 형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창작된 〈Swan Lake; The Wall〉은 초자연적인 공간에서 인간의 삶을 영유하는 백조들을 반목과 질시로 대립시킴으로써 분단과 이산이 만들어지는 현실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어떤 분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조들의 삶이 갈라지고 찢겨져 해체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는 한국 사회의 분단과 이산이 만들어낸 진영적 갈등을 딛고 통일을 갈망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죠.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다양한 갈등과 전쟁을 이겨내고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애의 염원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작품 속 의상, 안무 등에서 특별히 신경쓴 부분이 있다면?

정형일(안무/연출) 원작 〈백조의 호수〉의 안무들이 주로 인간 세계의 성년식, 무도회 등의 다채로운 춤과 호숫가 백조들의 아름다운 춤, 그리고 왕자와 오데트의 서정적인 춤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Swan Lake ; The Wall〉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조들의 아름다운 춤을 기초로 하여, 대립과 갈등, 경쟁을 일으키는 대결의 춤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춤과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낭만적인 사랑의 서정적인 춤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발레의 다양한 표현성을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사회적인 주제를 창작 발레로 표현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웠던 지점은?

정형일(안무/연출) 사회적인 주제로 출발했지만 1차원적인 묘사를 넘어 예술적 상징으로 그려내면서 작품이 그 깊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보다는 그 상징성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중첩화시키고 형상의 깊이를 키워가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극성을 가진 구성인 만큼 표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 이 작품의 기대할 만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정형일(안무/연출) 외형의 장벽과 내면의 장벽으로 만들어지는 백조들의 춤을 표제적인 표현부터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표현까지 아우르며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작품이 가진 예술적이면서 사회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서정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정서부터 유쾌하면서도 즐거운 축제의 여흥까지 다양한 창작 발레의 면모를 펼쳐보이고자 합니다. 특히 관객의 입장에서는 사회집단의 갈등에서부터 한반도의 분단과 국제적인 갈등 차원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예술적 상징과 사회적 의미가 만나는 과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던 발레의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부터 표제적이고 정서적인 표현까지 다채로운 춤의 형상과 만날 수 있고, 축제의 유쾌함과 죽음의 서정성까지 다양한 정서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작품을 관람한 관객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기억됐으면 하나요?

정형일(안무/연출) 낭만적 세계가 현실적 상징이 되며 강한 공감대를 일으키는 작품이자 고전 발레의 전통과 심리적이고 추상화된 모던 발레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합니다. 또한 대립, 갈등, 상생, 축제 등 다양한 극성으로 그려진 매력적인 무용 작품이면서 발레만이 가진 다양한 신체 표현과 예술성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작품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형일 Ballet Creative

오산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정형일 Ballet Creative는 예술감독 정형일을 중심으로 컨템포러리 발레 작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단체이다. 발레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 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니멀하고 세련된 무대를 구현하며, 인간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조형미가 강조된 정형일만의 고유한 움직임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에는 발레의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포지션에 새로운 상상을 더하고 고전 발레 작품 속 백조라는 캐릭터를 재해석하며 단체만의 작품 세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 발레의 역사와 현재가 무대에서 만나는 작업들은 컨템포러리 발레가 보여줄 수 있는 세련된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작품은 춤의 근원, 인간의 내면, 이 사회의 단면 등을 반영한다. 정형일 Ballet Creative는 예술성·작품성과 대중성이 균형 잡힌 레퍼토리의 지속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컨템포러리 발레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고자 한다. 2019년 아시아의 컨템포러리 발레 안무가들과 아티스트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축제, 아시아 컨템포러리 발레 축제 Co.B.A(Contemporary Ballet of Asia)를 개최하고 주관했다.

"사업 계획이 충실하며 드라마투르기 등 서사구조의 완결성에 신경을 썼다. 쇼케이스 관객 평은 사회의 여러 대립적 모습을 강조하고자 한 부분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는데, 본공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하다."

"고전 〈백조의 호수〉를 차용하여 현대사회의 여러 갈등 양상을 바라본 점에서 새로운 인식을 주고자 하였고, 이를 대립/통합 등 양가적 측면에서 보여주려 한 점에서 의미 있다."

"잘 알려진 고전 〈백조의 호수〉를 새로운 시각과 접근으로 해석, 간결한 안무와 '대립'이라는 명확한 주제로 잘 표현했다."

"그동안 발레가 현실 문제에 미온적이었던 데 반해 이 작품은 사회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전의 재해석이란 측면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연구를 거듭하여 재공연한다면 새로운 의미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무대를 구성하고 구조화된 아름다움을 잘 만들어낸 안무인 듯하다. 모던함과 발레의 경계를 잘 인식한 움직임으로 미학적인 완성도를 많이 높일 수 있었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었다."

"서로 당기고 밀치는 과정은 고전 발레의 서정성과 패턴이 남아 있지만 움직임의 질감과 형태적 부분의 재구성은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준다. 움직임의 형태미는 고전발레의 화법을 따르면서도 적절한 속도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이색적이다."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갈등과 데칼코마니 같은 내러티브가 흥미로웠다. 고전인 〈백조의 호수〉를 이렇게 변주한다니 같은 시리즈의 다른 작품들도 궁금해졌다."

"극의 진행 구조는 차분하면서도 극적으로 변화되는 형태다. 안무가와 무용가의 역량이 뛰어나고, 주제를 충실하게 표현해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다."

"발레 바를 바리케이드처럼 때로는 거울처럼 활용한 연출이 돋보였다. 대립과 화합이 꼭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갈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의 분단 현실을 상징하는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오랜만에 무용다운 무용을 본 것 같았다. 발레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토슈즈를 신지 않고 의상도 패티 드레스가 아닌 팬츠로 실용성과 단순미를 살려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다. 백조의 자세와 포즈, 모양, 습성까지 섬세하게 표현한 움직임이 많은 박수를 유도했다."

"기획이 흥미롭고 한국의 분단 현실을 작품에 담았다는 점도 시의성도 있게 다가왔다. 모든 것이 흑과 백으로 선명하게 나누어질 수 없으며, 현대의 수많은 갈등이 어쩌면 흑백이 아닌 회색일 수 있는데도, 끊임없이 진영을 나누고 대립하려고 현상에 대한 물음 같기도 했다."



Hit & Run



시나브로 가슴에

치고, 던지고, 달린다. 그 안의 휴머니즘

〈Hit & Run〉은 야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인칭 시점에서 현재의 나는 인생이라는 야구경기 안에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자문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순간을 위한 과정을 거쳐 역전만루홈런을 이뤄내는 시간에 도달하고자 한다.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 3월 7일(토)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60분 예정
티켓 | 전석 3만원

무대감독 | 이종진
프로듀서 | 조하나
출연 | 권혁 김소연 김혜진 문수주 변혜림 안지형 이재영 이학 임희종
안무 | 안지형
예술감독/연출 | 이재영
무대 | 남경식
조명 | 홍유진
음악 | 지미 세르

야구를 작품의 소재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지형(안무) 야구는 과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상당히 밀접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투수는 전력을 다해 던지고 타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쳐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리죠. 야구 경기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장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히스토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한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직면하고 있는 삶에서 느꼈던 여러 감정을 잘 담아내고 있는 소재가 야구라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속에 반복적인 동작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의도인가요?

안지형(안무) 야구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선 기다림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죠. 야구와 삶의 교차점을 찾다보니 그건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래서 소재를 더욱 더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단순화시키되 그 안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를 '던지고, 치고, 달린다'로 함축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극대화하여 단순함 속에 숨어있는 깊이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음악과 의상을 제작할 때는 특별히 어떤 부분을 고려했나요?

안지형(안무) 야구를 소재로 하고 〈Hit & Run〉이라는 제목이 어쩌면 관객에게 많은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소재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디자인의 방향성을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야구의 이미지를 작품 내에 애매모호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상은 각기 다른 클래식 슈트에 통일된 양말로 포인트를 주었고 음악은 함성 소리, 박수 소리 등 야구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다양한 색감의 사운드로 접근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일상적이지만 그 안에 야구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도이자 특징입니다.

야구와 인생은 어떤 점이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지형(안무)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9회말 투 아웃에서도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야구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며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그렇기에 야구와 인생은 포기하지 않고 불안한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뎌내야 앞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던지고 치고 달리는 것이 인생이고 야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안지형(안무) 현재 우리는 결과 중심적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에 의해 삶의 당위성을 느끼고, 무수한 감정을 겪으며 더욱 더 치열하게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Hit & Run〉은 나 혹은 우리의 기록입니다. 불안한 시간을 묵묵히 버텨나가는 것. 무의미한 행동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목표를 위해 울림있는 한 발을 나아갈 수 있음을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휴머니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나브로 가슴에

시나브로 가슴에(Company SIGA)는 "조금씩 조금씩" 춤을 통해 우리 삶과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단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움직임과 사고를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작업 형태의 작업방식을 추구한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작품마다 새로운 시도와 모험에 도전하며 "조금씩 조금씩" 춤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한다.

"작품의 주제뿐 아니라 대본 내용, 무대 구성, 음악, 움직임 등 전반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되었다. 반복이 많다는 관객 평가단의 의견이 있었으나 무용단의 핵심 색채인 '미니멀리즘 무브먼트'를 포기하지 않은 점은 오히려 긍정적이다."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다양한 순간, 삶의 과정들을 말하고자 하는 작품이다. 야구와 인생의 공통점을 확장된 시선으로, 치고 달리는 야구의 타이밍과 우리 삶의 타이밍을 견주게 만든다. 그러한 기다림의 과정을 밀도 있게 잘 만들어낸 듯하다."

"과연 우리의 삶과 야구의 승패는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 호기심과 긴장감을 패턴과 변주, 그 변주의 타이밍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연출과 안무, 최소화한 조명과 오브제 등이 한껏 그 호기심을 끌어올린 공연이다."

"스포츠를 소재로 활용했다는 점이 신선하면서 창의적인 면이 있고, 주제도 명확했다. 심플하면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무대, 효과적인 소리의 사용, 조명의 역할 등도 좋았다."

"시나브로 가슴에 무용단이 최근 시도하는 '미니멀리즘 댄스'의 가장 핵심적 외형은 단순 반복이지만, 특별하다. 남다른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고도로 훈련된 무용수들의 높은 집중력 위에 효과적인 반복과 미세한 변형으로 진행되는 안무의 노련함이 함께하고 있다."

"신선한 소재와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주제, 모던하면서도 응집력 있는 안무와 효과적인 사운드, 조명 등은 인상적이었고, 스포츠라는 소재를 직접적이지 않게 주제와 잘 연결해 무용으로 세련되게 표현했다."

"던지고 치고 달리는, 또 각자 정해진 포지션이 있는 듯하면서도 공수가 바뀌는 움직임과 기다림이라는 모티브를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1루와 2루, 홈 베이스와 벤치 등 야구의 모티브를 다양하게 변주한 무대 연출이 이색적이었다. 택견을 연상시키는 반복적인 군무가 인상적이었고,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공연이었다."

"고난도 동작이나 복잡한 구성이 없는 대신 모두가 한 호흡으로 가면서도 자기 내면에 집중해서 자아내는 정적 에너지의 흐름이 좋았다."

"야구에서 모티브를 따온 공연의 구성이 참신하다.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지나 또한 팀워크이기도 하며 누구에게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야구의 모티브를 잘 변주했다고 생각한다. '따로 또 함께'라는 공동체적 가치가 필요할 요즘에 시의적절한 공연이 아니었나 싶다."

"무대 의상과 연출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와 작품해석이 가능한 것 같다. 무엇보다 너무 어렵지도,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게 풀어낸 현대적 무용이 인상적이었다."





오래된 미래: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이야기 — 해금플러스



팔음(八音) — 음악그룹 나무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 수궁가 — 입과손스튜디오

삼대의 판 — 천하제일탈공작소

전통예술

삼대의 판



천하제일탈공작소

근대소설의 대표작 〈삼대〉를 탈춤의 전형성으로 새롭게 양식화하고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1930년대 서울의 이름난 만석꾼 조씨 일가의 삼대가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몰락해 가는 양상과 당시 청년들의 의식과 고뇌를 그려낸 작품 〈삼대〉. 〈삼대의 판〉은 조씨 삼대 캐릭터를 탈춤으로 재해석하여 원작 속 세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이권에 대한 갈등을 새롭게 담았다. 탈춤의 이면에 자리잡은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찾고 탈춤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 보자.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 12월 22일(일)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70분 예정
티켓 | 전석 3만원

음향감독 | 전민배
그래픽디자인 | 맛깔손
사진·영상 | 노신회
홍보 | 김서희
제작PD | 차정훈
연주 | 김보라 이준 황민왕
무대·조명디자인 | 남경식
의상디자인 | 임경미
탈디자인 | 서공희
무대감독 | 김상엽
원작 | 염상섭 작 〈삼대〉
연출 | 신재훈
출연 | 박인선 윤진성 이주원 허창열
음악감독 | 이아람

고전소설 〈삼대〉가 원작입니다. 이 이야기로 탈춤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신재훈(연출) 〈삼대〉는 우리나라의 대표 소설로 1920년대의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이권의 갈등이 복잡하게 뒤엉킨 〈삼대〉를 탈춤으로 양식화하여 탈춤이 과거만의 유산이 아닌 동시대 공연예술로서 그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목처럼 삼대에 걸친 인물의 구별이 명확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상황도 구체적이어서 탈춤의 과장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협업했습니다. 협업의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신재훈(연출) 탈춤이 가진 해학과 넉살의 미학뿐만 아니라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생기는 다양한 미학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협업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회성 만남으로 채워지지 않는 질문과 경험이 쌓여가고, 고민을 깊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주원(대표) 창작 작품의 필요를 느꼈지만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연부터 연극 연출과의 협업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협업을 통해 그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연출, 기획, 미술, 음악, 의상 등 프로덕션이 갖추어져 역할 분담을 통해 작품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기존의 탈춤꾼들에게는 달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과 꾸준히 협업을 진행하며 다른 장르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하여 배우고, 다른 장르를 통해 트렌드를 읽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협업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기존 탈춤과 다른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이주원(대표) 기존의 탈춤은 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과 풍자를 통해 민중들의 사회적 억압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며 공감을 얻어내고 축제적 성격으로 공동체의 신명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품은 전통적인 탈춤을 구성하는 공동체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의 역량, 탈춤이 가지고 있는 춤의 섬세함과 의미, 탈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다양함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게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탈춤은 지배계급 양반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탈춤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주원(대표) 과거와 오늘날의 탈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탈춤은 양반과 말뚝이의 대립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 당시를 풍자했습니다. 반면,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작업 방향을 감안하면, 풍자와 조롱보다는 탈춤의 예능적인 면과 형식, 대중의 공감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고 관객의 공감을 얻어내는 날이 온다면 왠지 기존의 탈춤과 잘 맞닿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통예술 중에서도 탈춤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를 찾아보기는 어려운데요.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앞으로의 계획은?

이주원(대표) 가장 큰 목표는 정체되어 있는 탈춤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탈춤도 강물이 흐르듯 시대와 함께 흘렀었습니다. 당대를 풍자하며 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혁명적인 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탈춤은 '보존'이라는 사명 아래 흐르기를 멈추고 있습니다.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장르가 된 것 같습니다. 보존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지금의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멈추어진 지금, 과거의 전설로만 느껴지는 탈출의 옛 영광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천하제일탈공작소

천하제일탈공작소는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을 만들고 있는 젊은 탈춤꾼들의 예술단체다. 전통 탈춤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지역의 탈, 움직임, 음악, 언어를 확장시키고 현 시대의 이야기와 함께 지속적인 창작활동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다.(대표: 허창열, 이주원)

"염상섭의 소설 〈삼대〉가 가진 작품성을 지금의 시점으로 해석하려는 의도에 충분히 공감한다."

"탈춤의 전통적 춤사위와 호흡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면서도 〈삼대〉의 서사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적절한 변용과 실험적인 표현이 돋보였다."

"탈춤에 있어서는 소재의 확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연극 입장에서는 한국적 연극의 가능성을 보여준 공연이었다. 전통 예술이나 근대 문학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다가가고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세 명의 캐릭터를 통해 잘 드러냈다."

"전통 예술을 토대로 성장한 탈춤이지만, 연극계에서 계속 탐구하는 '한국적 연극'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한국적 연극이 탐구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탈춤이 가진 풍자와 해학이라는 가치에 집중하다 보니 춤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공연이 많이 없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춤을 보는 공연은 무용계가 담당했고, 풍자와 해학은 연극이 담당했다. 그러나 본 공연은 춤꾼이 전면에 배치되고 춤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동시에 이야기를 만드는 춤꾼에 주목하게 하는 점은 공연 예술계의 좋은 성과로 남을 만하다. 탈춤의 행위자가 주목되고 전문적 성취를 이뤄가는 과정에 박수를 보낸다."

"탈춤이라는 연희 양식이 전통적 서사를 넘어서 근대적 서사 또는 서구적 서사까지 충분히 담아낼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작품이었다."

"쇼케이스 때, 제한된 오브제와 움직임으로 극의 내용이 잘 표현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느꼈다. 실연에서는 바닥과 조명을 이용한 무대나 탈과 의상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다."

"아버지, 아들, 손자의 대사와 지문에서 그들의 성격을 충분히 구현했고, 중간 해설 또한 극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이 되었다. 설사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풀어냈다고 생각한다."

"바닥, 조명, 탈, 의상, 오브제와 음향, 내레이션이 모두 조화롭다. 무대 구성 요소가 하나하나가 일정한 질감과 콘셉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절제된 움직임 안에서 극 중 상황과 배역의 성격들을 매우 잘 묘사했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동작이나 해석하기 어려운 모습들은 전혀 없었다."

"최근에 본 작품 중, 가장 독창적이다. 탈춤으로 근대극을 구현한 것이 참신하다. 절제된 움직임과 탈, 무대배경과 조명 등 연출된 장면마다 김수근 작가의 그림을 연상케 했다."

"원작 소설에서 다루는 세대 갈등은 현재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관객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주고, 다양한 의미를 해석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완창판소리프로젝트2 강산제 수궁가



입과손스튜디오

이 시대를 사는 소리꾼과 고수의 스타일로 새롭게 해석되는 완창판소리

재담과 고제 소리의 형태가 잘 보존된 〈강산제 수궁가〉를 현대의 '판(극장)'에 맞추어 재구성한 입과손스타일의 판소리 완창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 수궁가〉. 입과손스튜디오는 수궁과 지상을 오가며 펼쳐지는 토끼와 별주부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로 비유된 수궁가 속 다양한 인간군상을 들여다봄과 동시에 예나 지금이나 사회 전반에 흩뿌려진 부조리함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완창에는 연희, 민요가 더해져 기존의 전통 판소리 완창보다 음악적, 시각적인 면에서 더욱 확장된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시대를 사는 소리꾼과 고수의 시선에서 재해석된 '판소리 완창'과 함께 새해를 신명나게 열어보자.



일시 | 2020년 1월 17일(금) – 1월 18일(토)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120분 예정
티켓 | R석 4만원 / S석 3만원

공동연출 | 입과손스튜디오
출연 | 입과손스튜디오(김소진 이향하 김홍식 신승태 이승희)
유희 조원석 성슬기

전통적인 수궁가 완창판소리와 구별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입과손스튜디오 전통 판소리 수궁가는 판소리 다섯 바탕(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중에서도 유독 고어와 사자성어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판소리를 잘 알거나, 창본을 세세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지요. 이번 '완창판소리프로젝트'는 보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수궁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전통 완창판소리의 일반적인 양식이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 병풍과 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입과손스튜디오 스타일의 완창판소리 〈수궁가〉에는 한 명의 소리꾼과 세 명의 고수를 중심으로 여럿의 민요 소리꾼과 연희단이 함께 합니다. 민요 소리꾼들은 소리꾼의 소리 중 다소 이해하기 힘든 고어 대목에서 관객들이 장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뉘앙스를 만들어주는 '코러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희단은 고수 영역의 확장으로서 전통 판소리보다 적극적으로 소리꾼과 댓거리를 합니다. 또한 이야기(소리)를 이끌어가는 소리꾼의 입장에서도 약간의 변화를 꾀하여 현대적인 관점에서 고전 속 인물들을 적재적소에서 꼬집습니다. 왕(지위와 권력을 가진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토끼(민초로 대변되는 동물)의 간을 빼오라는 명령에도 충성을 다하는 별주부 자라를 답답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있다가 병이 든 왕을 한심하게도 바라봅니다.

완창판소리프로젝트1에서 이번 프로젝트 2를 작업하며 새롭게 시도하고 바뀐 점은?

입과손스튜디오 〈완창판소리프로젝트1_동초제 심청가〉를 작업할 당시에는 우리 스스로 '완창'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쓰는 데에 큰 의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의 '완창'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소리를 가장 비슷하게 잘 해내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면, 〈완창판소리프로젝트〉의 첫 번째 무대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완창'의 의미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시대에 따라 소리꾼과 고수의 살아있는 시선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동시대의 관객들을 만나는 작업이 완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그렇게 생각은 했으면서도 사실상 첫 번째 완창까지는 전통원형을 변형하거나 창작을 더하는 데에 있어 조심스러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이게 완창이 맞을까?'라는 반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많이 하던 작업이었달까요. 하지만 두 번째 완창 판소리를 준비하는 마음은 사뭇 다릅니다. 소리꾼과 고수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이야기를 잘 펼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동시대의 관객들과 보다 친밀하게 나누고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완창을 하기에 좋은 '판'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보이고자 하는 소리의 미덕과 재미들을 잘 살리는 방향이라면 좀 더 과감하 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형과 재구성을 취했습니다.

작품의 관전 포인트, 또는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입과손스튜디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오랜 시간 수많은 소리꾼과 고수들이 깎고 다듬은 전통 판소리 다섯 바탕의 완성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매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판소리 공연이 처음이신 분들에게 이 공연이 부디 다른 판소리 작품을 궁금하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또 각자의 눈높이에서 입과손스타일로 새롭게 구성된 완창판소리를 즐기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입과손스튜디오 입과손스튜디오는 다양한 각도에서 판소리의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판소리인가?'라는 질문을 잠시 내려두고 '판소리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라는 궁금증으로 많은 형태의 작품을 창작해보려 합니다. 앞으로는 문학, 음악, 무용, 연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자들과 협업할 계획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과도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입과손스튜디오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우리의 처음을 확인하고, 뿌리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한 〈완창판소리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이르기까지 전통 판소리를 '입과손스타일'로 해석하고 창작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질 예정이며, 입과손의 이러한 지도 없는 여정에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고 오래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과손스튜디오

입과손스튜디오는 소리꾼과 고수가 함께하는 작업공동체이다. 입과손은 판소리라는 연희양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한다.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확장 또는 변형하는 작업을 통해 '판소리 창작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판소리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판소리 창작'은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결과물뿐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준비부터 창작과정 전반을 포함하는 말이다. 따라서 입과손스튜디오는 기존의 판소리 창작 방식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작업방식을 연구하고 기록해 나갈 것이다.

"실연 심의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것이 '가사의 전달'이었다. 이에 따라 고어(古語)를 현대어로 많이 각색했고, 고어체를 살려야 하는 대목에서는 양옆 스크린을 통해 자막(가사)을 제공해 작품 이해와 판소리 감상의 묘미를 살렸다."

"수궁가가 현대 사회에서 소통되기 어려운 이유를 잘 해소하고, 수궁가가 현대 사회에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공연 에 잘 결합했다. 완창판소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리꾼의 예술적 기량이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전통 판소리의 가창과 서사적 특성을 변형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수궁가 특유의 서사와 각각의 등장 인물에 적합한 반주 음악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경서도 소리를 극적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배치해 서사 음악으로서 기능하게 한 점도 신선했다. 특히 전통적 소리꾼의 정체성을 가져가면서도 본 작품의 새로운 색채에 맞는 확장된 가창, 연기, 움직임을 구현해내었다."

"입과손스튜디오는 본 작품을 통해 판소리에 기반한 창작의 근거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치열한 창작과정을 통해 높은 완성도의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창작 판소리의 모범 사례라고 할 만한 신작이 나왔다. 단체 멤버인 타악주자들과 판소리꾼들이 공동 창작 방식으로 작업 기간 내내 깊이 있게 몰입하여 만들어낸 우수한 작품이다."

"수궁가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수궁가는 분명 재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일반 관객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쉽지 않아 숙제처럼 존재했다. 그것을 보란 듯이 함께 즐길수 있는 소리로 만들었다.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양식적 즐거움을 맛보는 예술로서의 판소리를 되새기는 공연이었다."

"긴 판소리 완창을 어떻게 함축적인 텍스트로 풀어낼 것인지 궁금증과 기대감이 컸는데, 군더더기 없이 핵심적인 부분을 매우 잘 전달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판소리만이 가지고 있는 대사의 재미를 충분히 살려주었다. 소리꾼의 스토리텔링 능력까지 더해져 완창을 들어야 하는 관객의 부담감도 줄여주고, 텍스트 전체가 옛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다가와 흥겹게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었다."

"화려한 무대는 보는 재미를 더했다. 연기자들의 형형색색 의상과 다채롭게 꾸며진 무대는 관객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실제 용궁에 있는 듯한 느낌, 육지로 나와 함께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 등을 자아내 극에 몰입할 수 있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친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옛이야기가 늘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으므로 시의성은 적절했다. 더불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창작 판소리로 재해석된 소리와 다양한 전통 음악을 보고 즐길 수 있어서 주목받을 만하다."

"1인 소리꾼을 중심으로 바깥 소리꾼과 연희단, 민요 소리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은 절묘한 발상이었다. 덕분에 극의 이해와 흥을 유연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 공연의 다른 부분 모두 완성도 높은 텍스트로 빛났다."



팔음(八音)



음악그룹 나무

15세기 세종의 종묘제례악에 던지는 질문,
21세기 음악그룹 나무의 새로운 종묘제례악
'우리에게 당연하게 내려져 온 음악이 과연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일까?'

이 공연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음악그룹 나무가 15세기의 세종에게 같은 물음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지키고 있는 종묘제례악이 '당연하지 않게' 계승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계승된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새로운 모습의 전통음악으로 발전시킨다면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음악그룹 나무가 전통예술 의식음악의 정수 '종묘제례악'을 바탕으로, '악학궤범'이 악기의 구성요소로 꼽은 '팔음(八音)'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삶의 행복과 풍요를 빌어주는 의식음악을 새롭게 구성한다.



일시 | 2020년 1월 17일(금) – 1월 18일(토)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70분
티켓 | R석 3만원 / S석 2만원

안무 | 송영인
움직임 | 송영인 박혜연 이영은 박수정
제작스태프 | 정혜리(제작 프로듀서) 최윤녕(음향 디자인)
조일경(비주얼 디렉터) 임정은(영상 디자인)
염신열(조명 디자인) 성혜율(의상 디자인)
장지은(홍보 프로듀서)
예술감독 | 이아람
작곡 | 음악그룹 나무
연주 | 이아람(대금) 황민왕(타악) 최인환(베이스) 성시영(피리, 태평소)

작품의 모티브나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아람(예술감독) 대금의 청공을 가리는 청 가리개에 한문으로 팔음과 여덟 가지 악기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대금'이라는 악기를 통해 전통음악을 처음으로 접할 때부터 팔음은 마치 제 몸의 손과 발처럼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실크로드 굿〉이 동북아 샤머니즘과 한국의 굿에 집중했다면, 〈팔음〉은 조선시대부터 전해내려온 궁중의 제례음악인 종묘제례악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15세기의 세종대왕은 그때까지 전승되어 연주해오던 종묘제례악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조선의 선왕을 모시는 제례에서 중국의 제례음악인 '아악'을 연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 세종대왕은 조선의 음악인 '향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종묘제례악을 만들라고 명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음악그룹 나무는 세종대왕의 이러한 정신을 받들어,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전통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팔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전해 내려온 전통은 다음 세대에 어떤 모습으로 계승되어야 할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작업입니다.

작품 제목이기도 한 '팔음'은 무엇인가요?

이아람(예술감독) 고려시대 때 중국 송나라로부터 들여온 '대성아악'은 유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궁중음악이었습니다. 팔음은 바로 이 '아악'을 구성하는 여덟 가지 재료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여덟 가지 방위에 각각 여덟 가지 재료의 속성, 즉 쇠(금), 돌(석), 줄(사), 대나무(죽), 바가지(포), 흙(토), 가죽(혁), 나무(목)를 배치해 음악과 악대의 구성에서도 그대로 차용하였습니다. 음향적이기보다 관념적인 음악 구성이었죠. 이러한 발상이 '아악'을 통해 고려시대로 넘어와서 훗날 조선시대 '향악'으로 분류되는 궁중음악에도 같은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향악에서의 팔음은 아악에서의 팔음처럼 관념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로부터 전승된 중요한 정신과 개념이라고 생각되어 향악기 또한 팔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무대 연출에서 특별히 신경쓴 부분이 있나요?

이아람(예술감독) 종묘제례는 굉장히 복잡한 규칙과 의미를 지닌 나라에서 가장 큰 의례이자 제사였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한양에 가장 먼저 종묘와 사직을 축조한 이후에야 왕이 머물 궁궐을 지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지요. 이러한 의미를 지니며 지금까지 전승된 종묘제례악이 음악그룹 나무를 통해 전통의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고, 어떤 부분이 새롭게 탄생되었는지 보는 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음악, 음향, 복색, 형식, 공간의 재배치는 전통의 깊은 아름다움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한 자리에 강력하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특히 종묘제례의 악대 구성을 의미하는 등가와 헌가를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무대미술과 조명, 영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통 악기 외에도 일렉트릭베이스나 콘트라베이스 등을 함께 사용한 이유는?

이아람(예술감독) 현대의 악기론에 따르면 전통적인 악기 분류법인 팔음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 물, 전기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악과 음향의 요소가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팔음에도 단순히 악기를 만드는 재료를 넘어서 음악을 구성하는 선율과 장단, 수많은 장르의 음악, 일무의 새로운 해석, 영상·조명·무대 등 음악 외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콘트라베이스나 일렉트릭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 되겠지요.

음악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음악그룹 나무가 생각하는 21세기 종묘제례악의 모습, 전통음악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아람(예술감독)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봅니다. 음악그룹 나무에게 그 가치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입니다. 당연하게 전승되고 있는 전통의 계승을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 고민 없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이유와 방법으로 새롭게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음악 안에서 존재하고, 관객분들에게 더욱 생동감 있는 전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그룹 나무

음악그룹 나무는 크리에이티브 대금연주자 이아람을 중심으로 타악연주자 황민왕, 베이시스트 최인환 등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으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 명의 솔리스트로 구성된 창작그룹이다. 여러 지역과 장르의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왕성한 협업을 통해 전통음악의 깊은 정신과 동시대인들이 즐길 수 있는 현대적 감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뛰어난 연주력과 전통음악을 바라보는 그들만의 독특한 시각과 해석을 더한 다양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2017년 PAMS 쇼케이스 〈Song of Willow〉, 2018년 Journey to Korean Music 〈나무유랑〉, 인도 5개 도시, 캐나다 3개 도시 투어 공연 등으로 국내외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으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서울남산국악당의 상주단체로 활동하며 기획, 제작한 〈실크로드 굿〉으로 제25회 무용예술상 무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악계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작품의 일차적 차용이나 변주가 아닌, 작품(종묘제례악)의 선택과 해체를 잘 수행한 작품이다. 작품 선택을 통해 작품의 변화가 아닌 그룹의 음악적 폭과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종묘제례악의 음악과 정제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으로, 음악적 구성과 편곡, 연주 모두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창작 안무가 반영된 춤과 움직임은 전통 정제를 효과적으로 대체했다."

"최근 국악계에서는 '어떻게 변주할지'도 중요한 문제지만, 한 편으론 '무엇을 변주할지'도 작품과 그룹의 성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택(종묘제례악)'은 기존에 그룹나무가 보여준 방향 및 색채와 다른 길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종묘제례악의 해체와 재구성의 난해한 실험을 통해 전통 예술 분야의 동시대성에 대해 고민하고, 전통 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일반 관객보다는 해외 컨템포러리 공연 예술계 매니아층을 공략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통 음악의 완고한 정형이라 할 수 있는 종묘제례악을 새로운 코드로 해석하고 과감하게 해체했다."

"제의를 표현한 극의 구성에 만족한다. 각 구성이 조화롭게 연결되고 악기마다 제의의 요소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느꼈다."

"앉아서 연주하는 악기는 상단에, 서서 하는 것은 하단에 위치시킨 계단식 무대로 모든 연주자가 잘 보이고 들려 좋았다. 계단이 주는 입체감에 공간감도 확장되는 느낌을 주었다. 시작 부분에 왕이 출궁해 종묘행을 하는 걸 상징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무대는 매우 화려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데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화려한 조명과 의상은 시선을 끌만했고, 변하는 음악에 따라 스크린의 영상이 달라져 한 시간이 넘는 공연에 집중할 수 있었다."

"멀게만 느낀 종묘제례악을 대중 가까이 가져와 동시대 향미를 가해 새로운 형식으로 변신시켜 무대화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연주자들의 호흡이 다 들리는 몰입도 높은 공연이었고, 그만큼 에너지가 느껴지는 공연이었다. 각 연주자의 개인적 기량이나 하모니가 뛰어났고, 특히 전체 공연을 이끄는 대금 연주자의 기량이 크게 돋보였다."

"전통 음악을 재해석하여 현대적인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은 전통 음악을 계승하는 데 무척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전통 음악도 잘 가공하면 현대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걸 알리는 일도 매우 의미 있다."

오래된 미래: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이야기



해금플러스

제망모가(祭亡母歌),
해금으로 세상의 모든 엄마를 노래하다

100년이 넘게 흘러간 대한민국의 시간, 역사를 바꾼 사건의 장면들 속에 우리의 엄마가 있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근원, 100년의 시간이 빚어낸 여성의 대서사시를 해금의 두 줄에 얹어 미래의 음악을 더듬으며, 모든 딸들에게 전한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 존재인지….



일시 | 2020년 2월 22일(토) – 2월 23일(일)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90분 예정
티켓 |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작곡 | Donald Womack 김성국 Moisès Bertran
강은일 Woody Pak 한진구
연주 | 강은일(해금) 김윤곤(피아노) Moisès Bertran(피아노)
최소리(피리) 박광현(퍼커션)
예술감독 | 강은일
연출 | 하종욱
협력연출 | 남인우

예술감독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반영되었는데, 이 작품을 만들게 된 배경과 만든 후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강은일(예술감독) 여성으로 태어나 50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많은 시간들이 아쉽습니다. 지난 세월은 여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지요. 그 세월 속에 있는 엄마를, 엄마의 엄마를 생각하다 보니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여 여성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어느 공간이든 여성이 참고 인내하며 거칠게 견디어 낸 삶은 장하고 위대합니다. 그 힘들이 음악으로, 예술로 표현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아름다운 삶이 두 줄의 해금 선율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제작진의 면모가 화려합니다. 김성국 작곡가, 도널드 워맥, 모세 베르트랑, 우디 박 등의 제작진이 작곡에 참여했는데요. 이들과 작업하게 된 계기와 음악적으로 좋았던 지점은?

강은일(예술감독) 세계적인 작곡가들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널드 워맥 교수는 하와이에서 여성의 잉태와 탄생, 만들어내고 살림을 지탱하는 창조성에 대한 곡을 쓰고, 모세 교수는 콜롬비아에서 스페인의 까탈루냐의 내전과 대한민국의 내전을 생각하며 전쟁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우디 박 교수는 미국 이주민의 아들로서 이주민 여성이 흘렸던 많은 눈물 속에 지치지 않고 삶을 살아낸 강한 여인상을 자아냅니다. 김성국 교수는 밝은 여성상을 시사하며 넘치도록 뿜어지는 희망을 가진 축제의 주관자로서의 삶을 그립니다. 내 품에서 자라 이제 어른이 된 작곡하는 나의 아들은 엄마의 삶을 해금에 담습니다.

본 공연을 준비하며 변화한 점이나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무대연출 포인트가 있다면?

강은일(예술감독) 11월 말에 위촉한 곡들이 나오며, 저 역시 딸을 생각하며 곡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가슴속에서 끄집어 낼 때마다 흥분되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기쁘고 용감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미지로 그려지는 네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키우다 엄마를 생각하게 되고 이내 여성의 이야기까지 생각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나 그리고 엄마, 엄마의 엄마, 엄마의 엄마의 엄마. 각 방에 배치되며 시간과 공간을 구분 짓게 될 것이며 내레이션과 텍스쳐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고 영상의 이미지는 오감을 활짝 열리게 할 것입니다.

지난 시대를 살아온 어머니들의 인생을 거대한 역사와 연결시킨 이 작품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강은일(예술감독)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잊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잃거나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의 강요나 협박으로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일깨우며 서로에게 용기내어 다시 일어서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독보적인 해금연주가이기도 하신데요. 이 작품 속에 주연으로 등장하는 해금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은일(예술감독) 해금은 두 줄 사이에 활대가 갇혀있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무한한 자유로운 꿈을 꿉니다. 천변만화, 해금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소통 가능한 악기입니다. 사람 목소리와 비슷하며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느짓한 농음들이 사람의 애간장을 녹였다가도 흥을 일구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감정들이 고스란히 배어 나와 거짓말은 할 수 없는 뻔뻔함과 당당함을 동시에 갖춘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해금플러스

강은일 해금플러스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텍스트로 한국의 전통악기와 서양의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고자 1999년 결성한 한국의 대표적 뉴 뮤직 그룹이다. 본 작품은 해금선율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호흡과 다소 거친듯한 느낌을 주는 찰현악기의 매력과 피리, 타악, 피아노의 선율이 만나 조화를 이루며 한국음악의 새로운잠재성을 선보인다.

"본 작품의 서사와 해금의 가락과 음향은 매우 효과적 으로 부합되었다. 이는 본 작품에 참여한 다섯 작곡가가 자신만의 개성적 어법을 충실히 구사하면서도 강은일의 해금 연주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배려를 한 결과로 보인다."

"전통 예술도 대중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적 이슈(여성주의)를 차용하여 동시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예술가와 대중에게 좋은 사례로 남을 공연이다. 여성주의 담론을 위한 국악 작품과 해금 작품을 생산하여 레퍼토리 창고를 늘렸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싶다."

"다섯 작곡가에게 창작 작품을 위촉하여 하나의 공연으로 엮은 것이기에 당연히 개별 창작곡마다 각 작곡가의 개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은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 여성의 역사를, 딸을 가진 엄마로서 살펴보며 윗세대와 아랫세대와의 교감을 음악으로 표현하려는 주제는 오늘날 여성 음악가라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주제이며, 동시에 전통 음악의 동시대화에 있어서 좋은 시도다."

"연륜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강은일의 생각, 음악, 연주만으로도 예술적가치가 높은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공연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연출, 주제를 부각하려는 텍스트와 무대 장치 등이 과하게 가세하여 강은일의 생각과 음악이 뒷전으로 밀려난 듯하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세 명의 외국 작곡가와 두 명의 한국 작곡가가 '어머니'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나름의 해석과 상상력으로 작업한 6개의 곡은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드러냈다."

"상징성을 띤 음악들은 작곡가 나름대로 해석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신나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곡이 바뀔 때마다 연주자와 관객의 거리도 가까워졌고, 감독의 설명이 더해져 좀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무대를 감상할 수 있었다. 변하는 조명과 스크린에 상영되는 이미지들은 모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순 없었지만, 연주자와 곡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각적 신호로 다가왔다."

"다양한 악기의 선율과 매력이 매우 잘 드러난 공연이었다. 전통 악기와 현대 악기가 어떻게 어울릴지, 또 곡에서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연주될지 궁금했는데, 매우 잘 어울렸다. 한국 전통 악기와 서양의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면서도 관객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왔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다국적 작곡가가 참여하여 작업하고 해금을 중심으로 전통 음악과 재즈를 접목한 스타일로 연주한 것은 신선한 발상이었고, 후속 작업도 기대된다."

"여성의 이야기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음악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내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한국 작곡가뿐만 아니라 외국의 작곡가들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여성과 한국의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곡으로 만들어 연주했기 때문에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엄마와 여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티스(ARTIS) — (주)홍컴퍼니



Via Air Mail —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봄을 그대에게 — (주)컬처마인



안테모사 — 공연창작소 M.A.P.

제4막 창작

안테모사



공연창작소 M.A.P.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판타지 동화
“이곳에선 사소한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져”

어느 작고 평범한 마을에서 이어지는 울창한 자작나무 숲속. 나무와 넝쿨, 고물로 뒤덮인 집, 안테모사. 사냥을 하고 약초를 캐는 할머니 페이시노에, 고물을 줍는 할머니 텔레스, 그리고 낡은 고물을 고치며 살림을 책임지는 알비노 소녀 몰페까지 백발의 세 여인이 그들만의 낙원을 가꾸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여비를 벌기 위해 우체부 일을 시작한 떠돌이 소년 제논이 새로 부임한 시장의 공문을 배정받고 안테모사로 향하게 된다.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안테모사를 방문한 낯선 손님 제논과 그가 가져온 공문으로 인해 여인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일시 | 2019년 12월 21일(토) – 2020년 1월 5일(일)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115분(인터미션 없음)
티켓 | R석 6만6천원 / S석 4만4천원

출연진 | 강지혜 장예원 고은영 김찬종 김대호 문경초 전성혜 정지은 장두환 김담현
연출 | 심설인
극작/작사 | 오혜인
작곡 | 강혜영
음악감독 | 문종인
안무 | 한선천

세이렌 신화가 이 작품의 모티브였다고 들었습니다. 신화의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나요?

오혜인(극작/작사) 뮤지컬 〈안테모사〉는 세이렌 신화를 모티브로 섬의 명칭과 세 여인의 이름만 빌려왔을 뿐 기본적인 배경부터 인물, 사건까지 전부 새롭게 창작했습니다. '안테모사(Anthemoessa)'는 꽃으로 뒤덮인 신화 속 낙원의 섬이지만 그 섬에 살았다는 세이렌(Seiren)은 선원들을 유혹해 물에 빠뜨린 마녀의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이렌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늘 아름답고 치명적인 여인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이렌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선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문득 새처럼 날 수 있거나 인어처럼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데도 왜 세이렌들은 안테모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일까, 혹시 누군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며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궁금증들이 창작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뮤지컬 〈안테모사〉는 세이렌 신화가 어쩌면 왜곡된 약자들의 역사, 여인들의 역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르코-한예종 뮤지컬창작아카데미에서 개발된 작품인데요. 연출할 때, 처음 만난 이 작품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심설인(연출) 대본을 읽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와, 이 많은 장소를 어떻게 다 옮겨 다니지?' 할 정도로 장소 변화가 무지막지했었죠. 그리고 '조연들의 다역을 어떻게 단 시간에 변화시키는가?'도 저에게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동화적 캐릭터들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뮤지컬이 가져야 할 음악적 즐거움이 잘 드러나서 보는 사람들의 기쁨이 상상되는 것이 〈안테모사〉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90분 버전의 대본과 음악을 완성하고 쇼케이스를 하고 나니, 좀 더 동화적인 오프닝, 할머니들의 과거와 그 연결점에 있던 조연들의 이야기에 좀 더 힘을 실어주면 〈안테모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더욱 더 완성도 있게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회의를 거쳐 할머니 둘 즉, 페이시노에와 텔레스의 과거 이야기가 좀 더 깊게 극중에 들어와 조연들과의 연결점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화적 캐릭터 강화를 위한 새로운 넘버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안테모사〉의 발전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대 연출이나 작곡 과정에서 특히 신경쓴 부분이 있다면?

심설인(연출) 무대는 '시선'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을과 숲속의 안테모사, 크게 두 장소에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마을의 건물이나 모습은 우리의 시선을 투영시켜 그들의 삶을 계속 지켜볼 수 있게 공개하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시선이 가득한 안테모사는 숲속 깊은 곳 생생한 고물의 집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판타지 동화'라는 장르적 특성상 여러가지 장소와 팝업처럼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장난감을 배치하듯 여기저기에서 조그마한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무대 세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강혜영(작곡) 등장하는 각 인물들과 여러 장소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과 성격이 음악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도록 다양한 장르로 넘버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극의 메시지와 아름다운 가사들이 노래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작품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시선이 음악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안테모사〉라는 작품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요?

오혜인(극작/작사) 〈안테모사〉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다만, 주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 시대의 소외된 개인과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까지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자아를 상실한 개인들이 연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나'를 온전히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공연창작소 M.A.P.

공연창작소 M.A.P.는 연출 심설인, 작가 오혜인, 작곡가 강혜영, PD 유제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창작집단으로 공정한 공연창작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고 Pre-Production 단계의 세분화, 전문화를 목표로 한다. 양질의 창작뮤지컬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장르의 창작 프로젝트를 통해 공연예술 대중화에 기여하고 즐거운 공연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극이 탄탄한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느낀다. 판타지 세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캐릭터들을 더 설득력 있게 살려내고, 어떤 효과를 전략적으로 준비할 것인지 등의 준비과정이 잘 보인다."

"대안가족, 소수자, 혐오와 배제 등 소재가 내포하고 있는 주제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의식을 끌어안고 있다. 작품의 우화적 설정은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현실적인 주제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꽤 적합해 보인다."

"진지한 주제의식을 우화적 설정으로 녹여낸 이 작품은, 비슷한 유형의 창작물이 범람하는 뮤지컬계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공연으로서 의미가 있다."

"음악적인 구조와 넘버의 구성 등이 매끄럽고 짜임새 있다는 점에서, 주제가 동시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내용과 음악이 어렵지 않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다양한 일반 관객들이 흥미를 갖고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안테모사〉에서 돋보이는 것은 소재의 참신함과 진지한 주제 의식이다. 대안 가족과 소수자, 마녀로 대변되는 혐오와 배제 등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화두를 다루고 있다. 뮤지컬의 대중 서사가 현실의 문제 의식을 끌어안는 방식을 보여줄 만한 주제 의식이다."

"사랑 이야기를 고전적인 서사와 다르게 풀어간다는 점에서 참신하다. 오두막에 우연히 찾아든 우편 배달부 청년 제논과 몰페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워가지만, 제논은 동화 속 왕자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제논은 몰페가 마을에 약을 구하러 갔다가 내몰림을 당할 때 몰페를 구하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몰페가 왕자에 의해 구해지고 기존 사회로 편입되는 결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동화를 전복시킨다."

"자극적인 소재에 지친 관객이나 일상의 고단함에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안테모사〉는 좋은 안식처가 될 것 같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함께할 수 있다는 건강한 결론, 그리고 안테모사로 대표되는 소수자들이 자신을 유지하면서도 마을 사람들과 화해하는 결말까지 좋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다."

"공연에서 그려진 다양한 소수자의 구도와 그들의 연대에 감동했다. 또한 제논과 페이시노에, 제논과 몰페가 겪는 갈등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

"무대 위에 안테모사의 집을 물리적으로 완성도 있게 구현했다. 제한된 동선 속에서도 넘버와 어울리는 인물들의 동작들도 좋았다. 특히 여행을 떠난 제논이 편지를 읽으며 객석 통로에서 등장하는 연출이 장면과 잘 어울렸다."

"여성 주연극 자체가 부족하고, 다루는 내용 또한 사랑과 집착 등 유성애적인 관계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은 놀랍기까지 하다."



봄을 그대에게



(주)컬쳐마인

1987년, 우리는 꿈을 꾸고, 사랑을 하고, ‘봄’을 기다렸다

1987년 봄, 대학에 갓 입학한 명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농활을 왔던 대학생 누나 수인이 연극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를 찾아보려고 애쓴다. 하지만 어쩐지 수인은 보이지 않고, 우연히 찾아간 다방에서 명하는 그녀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봄을 그대에게,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 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3월 30일 정문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난 명하,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격렬한 시위 현장이 펼쳐진다. 폭력적인 진압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집회현장,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명하는 드디어 수인을 만나게 된다.



일시 | 2020년 2월 22일(토) – 3월 1일(일)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90분 예정(인터미션 없음)
티켓 | 전석 5만원

안무감독 | 홍유선
출연진 | 임진섭 문진아 공민섭 조훈 나경호 임예슬
연출 | 박소영
작가 | 이은혜
작곡 | 류찬
협력연출 | 전서연
음악감독 | 이한밀

87년 민주화항쟁이 영화 속에서는 많이 다뤄진 반면 뮤지컬 소재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뮤지컬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나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은혜(작가) 1987년, 억압된 시대 속에서 민주화의 봄을 외치던 젊은이들의 모습을 음악을 통해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뜨겁고 뭉클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집회, 서클활동, 다방의 풍경 등 시대가 지닌 투쟁과 낭만성이 뮤지컬이라는 장르와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객들을 위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박소영(연출) 〈봄을 그대에게〉는 87년을 겪은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87년의 시대적인 상황을 사실적으로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무대 역시 그 당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개념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려질 예정입니다. 대신 인물들은 사실적으로, 그 당시 인물들이 살아나온 듯 생생하게 묘사될 예정이에요. 다만, 당시를 그리다 보면 알 수 없는 부채감과 죄책감에 휩싸이기 쉬운데요. 이 작품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최대한 관객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되려 담담한 톤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어떤 시대를 다룰 때는 컨셉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출적으로 〈봄을 그대에게〉는 그 시대와 작품 속 연극을 얼마나 영리하게 배치하는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거라 생각해요. 그 시대의 이야기는 작품 속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전달될 뿐, 그 시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감을 벗어던지고 이 작품을 편하게 관람하게 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이 부분이 연출 컨셉이 될 듯합니다.

배우진을 선정할 때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은?

박소영(연출) 배우를 캐스팅할 때에 배역 이미지, 연습 및 공연 스케줄 등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한마음으로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자'라는 생각을 창작진들과 공유한 상태로 출발하였습니다. 사전에 쇼케이스 및 학내 공연으로 트라이아웃이 되었던 공연이었기에 기존 원년 멤버도 있었으며, 새롭게 투입되는 배우들도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배역에 맞는 이미지인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았고 그 다음에 극의 장르가 연극이 아닌 뮤지컬이라는 부분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의 음성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소리의 색과 잘 어우러지는지 말이죠.

1987년 당시를 고증하기 위해 무대, 소품, 음악 등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류찬(작곡) 1980년대 후반의 음악적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 많이 불리우던 민중가요나 포크송들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증이라는 말이 음악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고증은 완벽한 표절일 수도 있으니까요. 당시 음악의 어떤 구체적인 요소들을 재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음악이 가졌던 힘의 근본적 요소, 즉 단순한 멜로디에 담긴 진정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 같 습니다.

87년이라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나요?

이은혜(작가) 이 이야기는 정치적인 사건보다는 본질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간 청춘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괴로운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고민하며 좌절을 경험하지만, 이를 극복해가며 다시 꿈을 꾸는 극중 인물들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주)컬처마인

(주)컬처마인은 문화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회사로 2014년에 설립되었다. 2017년 연극 〈운빨로맨스〉, 〈사랑해요 당신〉을 제작했고, 2018년에는 뮤지컬 〈오디너리데이즈〉, 〈산타와 빈양말 시즌1〉, 체험전시 〈인생 나침반〉 등을 제작했다. 2019년 낭독뮤지컬 〈백범〉과 〈산타와 빈양말 시즌2〉를 제작했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뮤지컬 〈봄을 그대에게〉 제작으로 다가오는 2020년 시즌을 연다. 마치 광물을 캐는 광부처럼 일상 속에서 기발하고 유익한 스토리를 발굴하여 삶의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일단 기획부터 무척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작품이다. 뮤지컬의 외연 넓히는 소재와 시도이고, 그 계획과 포부가 허황되지 않고 진솔해서 좋다. 배우들의 활용 역시 효과적이고 전체적으로 공연 기간만 충분하다면 소극장에서 롱런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소재나 주제도 창작 뮤지컬에서는 새롭지만, 형식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브레히트와 릴케의 시를 활용하여 메타 드라마 형식으로 플롯을 구성한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대부분 뮤지컬이 서양을 배경으로 하는 가운데, 한국 근대사를 통해 사회정치적 이야기를 다루는 점에서 창작 뮤지컬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작품이라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소재의 '이야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젊은 창작자들의 시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 시선에 시각을 더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는 키워드(연극과 연극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여부는 이 작품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다."

"멜로디가 명확하고 깔끔하여 귀에 감기고, 가사가 인물의 심경과 상황 등의 정보를 잘 드러냈다. 편곡과 연주도 음악적으로 빈 느낌을 주지 않았다. 록과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장면들과 잘 연계되어 음악적 완성도를 느끼게 했다."



"뮤지컬 장르에서 만주화운동 시대를 다루는 극이 많지 않아 새롭게 다가왔고, 이야기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 시대를 그저 장엄하거나 장대하게 다루지 않고 이 시기를 살아 가는 일반 대학생한테 초점을 맞춘 것이 좋았다."

"도구들의 배치가 극과 조화를 이루었고, 디테일이 가득차 보는 재미가 있어 시각적으로도 즐거웠다. 무대의 높이를 다르게 하고 인물의 동선을 서로 달리하며 안팎을 적재적소에 활용한 점이 흥미로웠다. 그 시대의 의상과 소품, 음악을 활용해 그 시대 그 공간에 있는 느낌을 주었다."

"주연인 문진아, 임진섭 배우의 연기가 좋았다. 특히 한결같이 곧은 정수인의 역할에 문진아 배우만큼 잘 어울리는 배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여성 캐릭터가 잘 살아있는 공연이었다. 대개 이 시기를 그리는 극들이 여성 캐릭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내조의 역할에 그치거나 철딱서니 없게 그리는 등 스테레오 타입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극에서는 수인이나 미란이, 그리고 단역으로 등장하는 여자 선배까지 모두 이 시대의 청춘들로 존재감 있게 그려져 좋았다."

"대부분 뮤지컬이 외국 캐릭터로 외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소재적인 측면에서 시의성이 있다고 느꼈다. 비교적 우리와 가까운 시대의 이야기를 정통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참신하게 느껴졌다."

"극장 전체를 사용하고 층고가 높은 무대를 사용하여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극장을 잘 사용했다. 시위 등의 긴박한 모습 또한 극장을 잘 사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보였다고 생각한다."

Via Air Mail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꿈과 현실, 상실과 치유 사이를 비행하며 삶의 가치를 밝혀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전쟁이 끝나고 항공 우편기들이 하늘의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한 1920년대. 작곡가 로즈는 모두가 기대하는 신항로 개척 기념식을 위해 곡을 쓰고 있다. 그녀의 남편이자 우편 비행사인 파비앙은 긴급문서를 받아 집을 나서고, 로즈는 늘 비상을 꿈꾸는 그의 뒷모습이 불안하다. 파비앙은 우편국장 리비에르의 긴급한 부탁으로 다친 동료를 대신해, 낡은 피아노로 고군분투하는 로즈를 위해, 몰래 신항로 개척길에 오르게 되는데…. 험준한 안데스 산맥을 뚫고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파비앙과 그의 우편기 피닉스는 강한 폭풍에 휘말린다. 연료도 떨어지고 기체도 손상된 채 모든 희망을 집어삼킨 깊은 어둠 속, 멀리서 반짝이는 작은 빛. 파비앙은 그 빛을 향해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그의 편지는 과연 도착할 수 있을까, 파비앙과 로즈는 꿈꾸던 야간 비행을 함께할 수 있을까.



일시 | 2020년 3월 7일(토) – 3월 15일(일)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100분 예정(인터미션 없음)
티켓 | 전석 5만원

출연진 | 송원근 나하나 황만익 김유정
연출 | 김동연
작가 | 한지안
작곡 | 채한울
안무 | 송희진

생텍쥐페리의 소설 〈야간비행〉과 1920년대의 우편비행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작품을 집필하게 된 계기와 구체적인 극작 과정이 궁금합니다.

한지안(작가) 첫 시작은 난생 처음으로 탄 밤 비행기에서 땅을 내려다 본 그 순간, '와, 하늘에 올라오니 별들이 다 땅에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비행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의 클래식 비행기들을 좋아해 자료들을 찾다보니 자연스럽게 생텍쥐페리에 닿게 되었습니다. 〈어린왕자〉의 작가지만, 뛰어난 우편 비행사이자 항로 개척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의 자전적 소설 〈야간비행〉이나 〈남방 우편기〉는 뛰어난 문학작품일 뿐만 아니라 당시비행사들의 경험과 느낌이 고스란히 담긴, 항공사적으로도 의미있는 기록입니다. 실제로 생텍쥐페리는 정찰 비행을 끝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궤적이 〈야간비행〉의 주인공 파비앙과 많이 겹쳐보였어요. 그래서 〈야간비행〉의 극적 상황과 일부 캐릭터를 모티브 삼아 '삶과 꿈,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재창작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그의 삶과 당시 비행사들의 항공기록을 많이 녹이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생각한 형식적 콘셉트는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작곡가인 주인공(로즈)이 한 곡을 서서히 완성하는 과정'을 담은 일종의 음악극이었습니다. 2015년의 초고는 거의 (음악이 주요 테마인) 희곡에 가까웠죠. 그러다 로즈의 '음악'을 서로 다른 공간을 하나의 순간으로 묶는 극적, 무대적 장치로 삼고 그녀의 시각으로 극을 진행시키면서 현재의 뮤지컬 대본으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작곡과정에서 특히 신경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채한울(작곡) 지역과 시대를 고려한 장르들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활용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 경험할 수 있는 자연 현상들이나 비행의 기계적인 과정도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포네틱 코드나 모스 부호도 음악적인 아이디어로 사용했습니다.

관객들을 위해 이 작품의 관전 포인트를 소개해주세요.

한지안(작가) '항공 우편기', '비행의 시대'라는 흥미로운 소재는 어른이 된 후로 잊고 살았던 모험과 꿈에 대해 한번씩 떠올려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텍쥐페리의 〈야간비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함과 생경함을 동시에 느끼실 겁니다. 파비앙과 리비에르가 '책임과 의무의 숭고함'이라는 작품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새롭게 창조되어 극을 이끌어가는 로즈와 메일보이는 '어떻게 상실을 극복하고 꿈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거든요. 모험하려는 파비앙, 상실을 견디는 로즈, 고뇌하는 리비에르, 꿈을 키우는 메일 보이 모두 현재를 사는 우리와 꼭 닮아 있습니다. 다채로운 네 명의 캐릭터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재해석, 재창작된 고전의 묘미를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대 위에서 한눈에 보이는 서로 다른 세 공간이 '음악'이라는 마법을 통해 같은 순간들을 공유하는 극적 형식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대사나 넘버,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채한울(작곡) 극 말미에 메일 보이가 부르는 '이카루스의 노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이 일련의 사건을 겪고 성장하면서 완성하게 되는 꿈꾸는 생에 대한 찬가입니다.

1920년대를 배경으로 닿지 않는 상대를 향해 포네틱 코드를 보내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날 이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기억됐으면 하나요?

한지안(작가) 한 통의 반가운 편지 같은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을 꿈꾸지도, 너무 높이 날지도 말라는 소리에 날개가 움츠려든 사람들에게, 순간의 행복이 아닌 그 너머의 무언가를 위해 각자의 조종간을 잡고 삶을 견디는 이들에게 이 작품이 따뜻한 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는 공연, 음악, 뮤지션 등 무형의 문화 콘텐츠를 자사만의 강점인 창의적인 기획과 제작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 기획 전문 회사이다.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가 다루는 무형의 문화 콘텐츠에는 경계와 한계가 없으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대중들에게 감동적인 체험을 선사한다.

"사업계획서에 콘셉트, 시놉시스, 넘버 구성, 예산 등 필요한 정보들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다. 야간비행의 시각적 이미지는 영상과 조명의 활용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극의 소재와 등장 인물이 매력이고 잘 만들어졌다. 특히, 음악과 드라마의 촘촘한 결합과 뮤지컬 어법의 효과적인 활용은 단연 돋보인다."

"창작 뮤지컬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생텍쥐페리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형식의 참신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창작 뮤지컬 장르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악을 통해 비행을 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이 작품의 장점 중 하나는 청소년과 중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관객층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뮤지컬 창작자들의 기본 역량이 돋보이며, 최근에 본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다. 뮤지컬에 어울리는 이야기와 적절한 소재, 좋은 배우들까지 완성도를 확보한 기획이다."

"생텍쥐페리의 〈야간비행〉을 바탕으로 한 만큼, 여성과 남성,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관객층을 흡수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작곡가를 주요 인물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뮤지컬만의 음악적 재미와 예술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 즉, 소재 개발과 형식에서 참신성을 느끼게 하며, 창작뮤지컬의 발전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생텍쥐페리 특유의 문체와 서술 방식을 제대로 해석한 것 같다. 원작 〈야간비행〉의 결은 살리되 〈Via Air Mail〉만의 색깔로 매끄럽고 따뜻하게 잘 다듬었다."

"네 명의 캐릭터 모두 매력적이었고 각각에 부여된 서사 역시 극 속에 잘 어우러졌다.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 번 파비앙을 등장시켜 아름다운 넘버를 합창해 주인공에게 무게를 들려준 점도 좋았다."

"극장을 알뜰살뜰하게 잘 활용했다. 시야의 한계를 객석과의 거리와 높이로 조정했고, 시원시원한 넘버와 가창으로 음향의 한계도 이겨냈다. 전체적으로 인물들의 동선이 깔끔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무대 완성도는 높았다. 왼쪽에 로즈와 파비앙의 집, 오른쪽에는 사무실, 가운데에는 파비앙이 타는 비행기 피닉스를 두었는데,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들어졌다는 느낌 없이 꾸며진 무대로 보였다."

"네 명의 배우 모두 넘버와 안무 소화에 무리가 없었고, 이미지도 굉장히 잘 어울렸다. 특히 메일 보이 역할에 여성 배우를 캐스팅한 것이 오히려 소년 이미지에 더 잘 어울려서 좋았다."



아티스(ARTIS)



(주)홍컴퍼니

질투, 그리고 나. 페허에 주저앉을 것인가, 다시 페허에서 꽃을 피울 것인가.

19세기 말, 예술가들의 도시 프랑스 몽마르트. 가난한 작곡가 에릭은 파리의 부호 파트릭을 만나게 되고, 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단숨에 유명 작곡가로 성장한다. 작곡가 지망생 마티스는 에릭을 동경하며 그에게 늘 조언을 구하지만 에릭은 거친 혹평만 던질 뿐이다. 한편, 에릭은 서커스걸 엘로이즈를 만나 곁에 두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엘로이즈의 꿈도 무시한다. 그러던 중 파트릭은 에릭의 권유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마티스는 그의 글에 영감을 얻어 쓴 곡을 에릭의 이름으로 당대 최고 권위의 로마대상에 출품한다.



일시 | 2020년 3월 21일(토) – 3월 29일(일)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100분 예정(인터미션 없음)
티켓 | 전석 5만원

작가 | 박예슬
작곡 | 남궁유진
안무감독 | 홍유선
연출 | 장우성
출연진 | 김도빈 안창용 김히어라 현석준

〈아티스 ARTIS〉라는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와 이것이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예슬(작가) 'artis'는 art의 어원인 라틴어로 예술,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예술에 재능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 재능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뮤지컬 〈아티스 ARTIS〉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재능을 새롭게 정의하고 싶어졌고, 오랜 고민 끝에 '재능; 오늘을 딛고 내일로 나아가는 힘'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나에게 없는 재능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부러움이 부정적인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허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폐허에 꽃을 피울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재능이라고 믿습니다.

배우 캐스팅에서 특별히 고려했던 점은?

박예슬(작가) 각 캐릭터별 성격 유형, 떠오르는 색깔, 초상, 습관, 말투, 생년월일, 키워드 등을 적는 캐릭터 차트를 만들어 파트너 작곡가와 공유한 후에 그 인물을 풍성하게 표현해 줄 배우들을 찾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은 다양한 면을 지닌 입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이미지보다 의외의 면을 발견할 수 있는 배우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파트릭은 헌신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진중하지만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재능이라 믿으며 앞에 나서기보다 후원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에릭은 성취 지향적이며 굽힐 줄 모르는 솔직함 때문에 트러블을 만듭니다. 직설적인 말투를 구사하며 자신이 원할 때마다 사람들의 호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재능이라 믿습니다. 마티스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세심하고 꼼꼼합니다. 성실함만이 자신의 유일한 재능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이 이룬 성취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로이즈는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로서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온갖 몽상이 지친 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도구였으나 현실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울고 싶을 때마다 크게 웃을 수 있는 힘이 자신의 재능이라 믿습니다.

작품 속에서 서로에게 의존하며 상처주는 인물들의 관계가 흥미로운데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었나요?

박예슬(작가) 일단 인물보다 '카바레'라는 공간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계몽과 쾌락이라는 상반되는 개념이 혼재하는 곳.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예술가와 하층민이 다시 꿈꾸는 공간이지만 너무나도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많아 더욱 고독해지고 마는 곳. 자기 보존과 자아실현 중에서 자기 보존밖에 할 수 없었던 시대상이 지금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 있는 예술가의 작업실이자 상류층만이 향유하던 '살롱'이 어떻게 '카바레'라는 공간으로 변모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인물을 구축하고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작품 속 네 인물 중 유일한 여성캐릭터 '엘로이즈'가 눈에 띄는데요. '엘로이즈'는 어떤 캐릭터이며, 극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박예슬(작가) 엘로이즈는 몽마르트의 연인으로 일컬어지는 '수잔 발라동'이라는 인물에서 착안했습니다. 서커스 단원이었으나 부상을 입고 몽마르트로 와서 예술가들의 뮤즈로 살았던 수잔 발라동은 모델에 그치지 않고 그림을 배워 여성 최초로 프랑스 국립예술원 회원이 되죠. 여성으로, 하층민으로 살아남기 결코 쉽지 않던 시대의 생존자로서 그의 목소리를, 증언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엘로이즈는 타인에게 부여받은 이름과 온기를 박차고 나가 스스로 세상에 자신을 새기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 애씁니다. 그의 발버둥은 오늘에 잠식되어 있는 다른 캐릭터를 내일로 나아가게끔 이끕니다. 결과적으로 엘로이즈는 '이름 없는 화가'의 생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대본을 쓰면서 "엘로이즈는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엘로이즈는 '남이 보는 내가 아닌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을 그려내는 인물입니다.

관객들에게 이 작품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박예슬(작가) 현재 공허하고 어둡기만한 날들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날들의 끝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오늘을 딛고 내일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 극이 오늘을 버텨내는 아주 가냘픈 온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홍컴퍼니

(주)홍컴퍼니는 공연전문 프로듀싱 컴퍼니로 창작개발 및 워크숍 주최, 제작 런칭 등 창작과정의 시스템화를 통한 시장 맞춤형 뮤지컬 제작과 유통을 목표로 2018년 설립되었다.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의 음악으로 창작한 뮤지컬 〈미인〉(2018)의 초연 성공에 힘입어 2019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되어 투어공연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또한, 재개발 과정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새롭게 공연한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2019)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뮤지컬 〈아티스 ARTIS〉가 2019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되어 2020년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등 중소극장 뮤지컬의 안정적인 제작과 레퍼토리화에 전념하고 있다.

"경력이 많지는 않으나, 역량 있는 창작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아름다운 가사와 서정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드라마터그 작업을 통해 보완하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작품은 예술가 개인보다는 그들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즉 예술 세계의 물고 물리는 관계 안에서 그들의 예술적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좌절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술가의 개인적 천재성이 아니라 관계의 산물로서의 창의력을 다루는 점이 흥미롭다."

"예술가, 특히 작곡가가 등장하는 뮤지컬은 자기반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음악적인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충분한 매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예술가의 천재성과 그로부터 오는 고뇌가 아닌, 자괴감과 부러움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이야기로 완성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가사와 깊이 있는 정서를 담은 독창적인 넘버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엘로이즈를 비롯하여 배우들이 각기 다른 개성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잘 표현했다."

"이 작품이 만들어내야 할 것은 '미세한 차이'이다. 기존 예술가 소재의 작품들이 반복했던 피상적 관념을 벗어나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예술가와 그들의 관계를 그려낸다면 이 작품의 의도는 충분히 구현될 것이다. 사회적인 관계는 관념적인 접근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풍경인 바, 예술의 창의력 이 사회적인 토대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이야기한다면 이 작 품의 성취는 기존의 뮤지컬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갈 길은 멀지만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일이다."

"극중 예술가의 권위를 결국 패배시키고 예술 지상주의 또한 어느 정도 허문 결말이 좋았다, 중간중간 화자를 바꾸어 가며 내용을 전개하는 구성 또한 뮤지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신선함을 느꼈다."

"넘버의 완성도가 우수했다. 각 넘버들의 색이 강하다 보니 극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귀에 맴도는 넘버가 많았다. 특히 '검은 고양이' 넘버는 쓰임새도 좋았고 임팩트 있는 강약 조절이 좋았다."

"무대는 테이블과 피아노를 제외하면 큰 장치가 없으며, 따라서 공간을 자유자재로 구현하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이곳이 파트릭의 집인지, 에릭과 엘로이즈의 집인지, 작업실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단점이었다."

"넘버가 너무 좋았다. 이 극을 다시 보고 싶다면 넘버와 배우들의 가창을 듣기 위해서일 것이다. 네 배우 모두 캐릭터와 잘 어우러졌다."

"이 극을 흥미있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 배우들일 것이다. 배우들은 열연을 펼쳤고, 그들의 캐릭터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창작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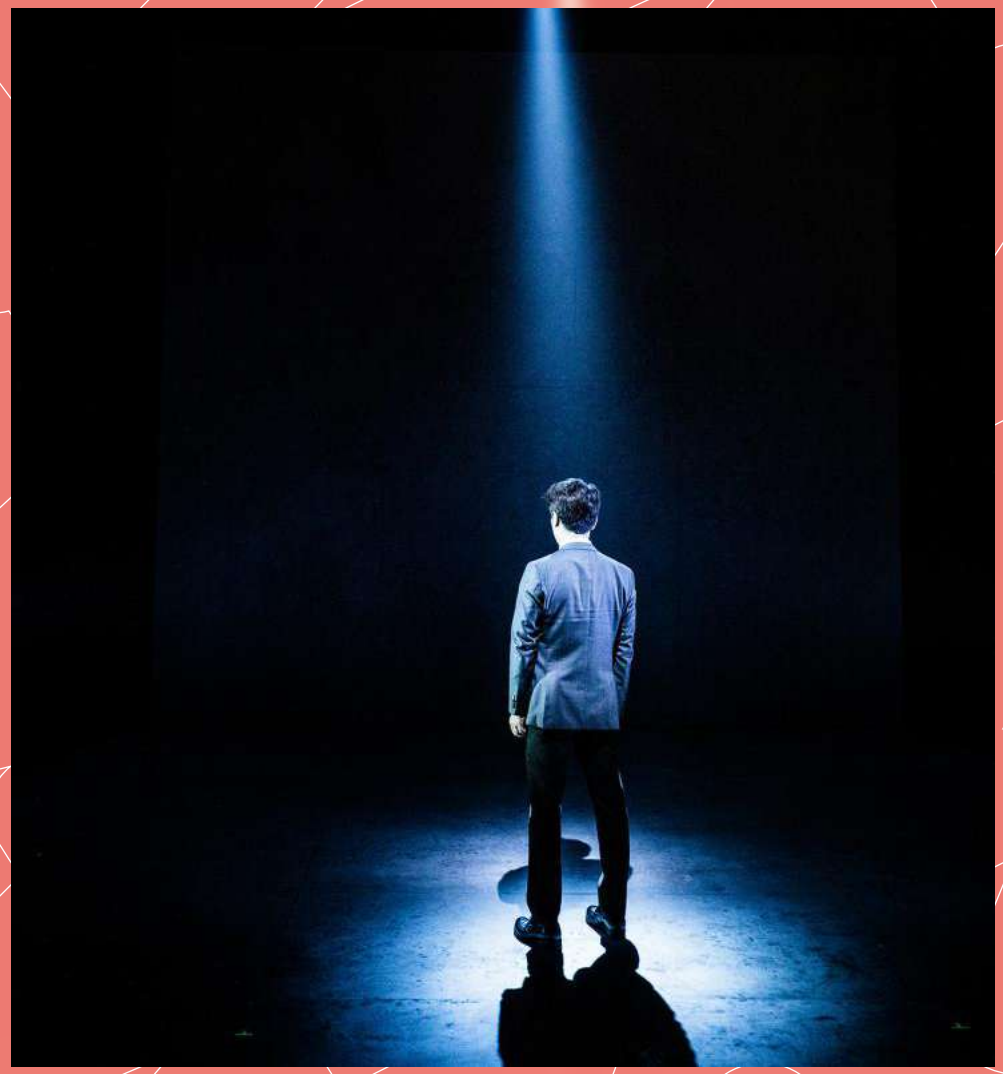
김부장의 죽음 (원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 — 오페라뱅크



까마귀 (원제: 내가 까마귀였을 때) — 라벨라오페라단

김부장의 죽음

원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



오페라빵크

난 그저 현금 인출기. 그런데….
내 삶은 잘못된 걸까?

65년생 김영호는 남들처럼 대학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들딸 낳고 평범하게 살다가 승진하여 부장이 된다. 한강변 아파트를 장만한 행복한 순간, 커튼을 달다가 떨어져 옆구리를 다친다. 병명조차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죽어가며 김부장은 그간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임종 직전,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주변에 대한 연민의 정만이 남았을 때 김부장은 죽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일시 | 2020년 2월 5일(수) – 2월 8일(토)
장소 |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러닝타임 | 80분 예정(인터미션 없음)
티켓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출연진 | 허철 임희성 권수빈 김보혜 이규철 최성수 조현애 이지혜 김남수 황상연 김은혜 정시영 양승호
연출 | 홍민정
작가 | 신영선
작곡 | 오예승
지휘 | 정주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어떤 면을 주목했는지 궁금합니다.

홍민정(연출)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본다'는 보편적 주제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호소력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이 소설은 모든 사람이 직면한 죽음 앞에서 사회적으로 평범하고 정상적이라 일컬어지는 삶의 허위와 폭력성을 폭로합니다. 현 시대의 사회적 맥락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통해 원작이 지닌 통찰력이 우리 관객들에게도 유효하리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름이 아닌 직함으로 불리는 '김부장'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 인물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요?

홍민정(연출) 원작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매우 평범한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흔한 이름인 '김영호'를 택했고 '김부장'이라는 호칭도 '평범한/보편적인/모든 사람'의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호칭은 개인의 이름보다 사회적 직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맥락을 통해 규정되고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일체의 사회적 맥락이 제거되고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만이 남게 됩니다. '김부장'은 죽음 앞에서 완전히 홀로 남은 인간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관객들이 이 작품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홍민정(연출) 〈김부장의 죽음〉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삶의 본질을 고찰합니다. 김부장 본인과 그를 둘러싼 지인들 모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김부장도 그를 무심히 지켜보는 주변인도, 죽음 뒤에 남겨져 또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인물들도 모두 '우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과 상황들을 너무 진지하게 다루기보다는 블랙 코미디를 통한 풍자로 풀어내길 원했고, 음악 또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왈츠나 탱고와 같은 춤곡을 많이 용용했습니다. 간단한 율동이나 안무, 대형의 변화 같은 '움직임'으로 풀어내는 '진지한 코믹'이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오페라를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소극장에 걸맞는 섬세한 음악가들의 음악과 연기를 통해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역동감을 느껴볼 수 있고, 작품이 주는 여운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고찰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페라뱅크는 소극장 창작오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민정(연출) 많은 분들이 오페라하면 대극장을 떠올리곤 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소극장 오페라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장수동 감독님의 서울오페라앙상블이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뱅크의 허철 단장의 첫 데뷔무대가 소극장 오페라였고 그 무대에서 사실감 있는 연기로 공연하는 소극장 오페라의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소극장 중심으로 공연하는 단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독일의 예를 들어봐도 1900년대 초반부터 소극장 오페라 운동이 일어나서 전 독일적인 오페라의 붐업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은 눈앞의 성악가의 연기와 노래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집중하게 되고,무대에 서는 성악가는 근접한 거리의 관객에게 밀도 있고 집중력 있는 연기와 노래를 선보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발전시킬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페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홍민정(연출) 오페라뱅크는 작은 공간이라도 무대가 주어진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을 모토 중로 삼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연수원, 부천 참좋은교회, 서울 어린이 병원 등 정식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도 저희의 오페라를 공연해 왔습니다. 오페라 원작을 정통 그대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부분적인 각색 변형을 거치기 때문에 오페라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페라뱅크

2013년 소극장 오페라를 전문적으로 제작·공연하는 순수민간오페라단으로 창단하였다. 단장과 상임지휘자, 상임연출, 상임음악코치의 협력 하에 상시 리허설 및 상시 공연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오페라를 제작·공연해 오고 있다. 창단 공연으로 양평소극장 오페라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모차르트(W.A.Mozart)의 〈코지 판 투테 Cosi fan tutte〉를 공연하였고 관객의 호흥에 힘입어 3년 연속 초청 공연했다. 2015년 12월에는 서울임피리얼팰리스 초청으로 국내 최초로 호텔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를 무대에 올렸다. 2018년도에는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Don Giovanni〉를, 2019년 역시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푸치니(G.Puccini)의 〈라 보엠 La Boheme〉을 공연했다.

"희극과 비극의 요소를 다 갖추어 '블랙코미디'라는 목표를 잘 달성했다.
톨스토이 원작을 재해석하여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게 그려냈다."

"원작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은 인류 보편의 주제인 죽음,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의 고통을 그려낸다. 이를 한국 오페라로 재창작하여 관객에게 소개한 것에
점수를 준다."

"오페라의 음악은 전반적으로 좋았다. 장면과 인물과 대사를 묘사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었다. 오페라적인 언어를 작곡가가 잘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한국어의 마지막 음절 중 의미 없는 음절에 대한 처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고,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작품은 오페라라는 장르를 일반 관객에도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이야기와
음악의 소재를 적절히 선택하였다. 특히, 극의 이야기는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진 노래들을 어떻게 새롭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좀 더 다양한 방법과 음악의 극적인 기능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대디자인과 주연 배우들의 연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비극적 상황을 코믹하게 회화하는 풍자적인 메시지와 "그대 살아있는 동안
빛나기를" 등의 모놀로그가 인상적이었다. 결말에 김부장의 강렬한 한마디 절규
"죽음이 끝났다. 죽음은 이제 없어" 인상적인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

"무대 뒤의 장치에 여러 작은 문을 만들어 액자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색다르게
등장해 연기하고 닫아서 영상을 비추면 전혀 문이 없었던 것처럼 만든 건
좋은 아이디어였다. 휠체어, 침대 등 여러 소품도 잘 활용해 무대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번안해 한강 전망 아파트 등 한국적 현실을 반영한
연출이 참신하게 느껴졌다. 시대를 초월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한국
직장인과 가장들에게 큰 공감을 줄 것 같다."

"극장의 규모나 구조는 오페라의 규모와 성격에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
극장 안으로 입장하기 전 또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서 무대를 비추어주는
스크린의 모습도 마치 극의 일부분처럼 인상적이었다."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동시대적인 의미를 담아내려 시도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죽음이 소재로 등장하지만 우울하거나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블랙코미디적인
요소와 비판적 요소를 통해 풍자와 해학적 요소를 가미한 연출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몰입하면서 느낀 바도 많았던 작품이었다."

까마귀

원제: 내가 까마귀였을 때



라벨라오페라단

당신의 '까마귀'는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IMF의 여파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한 가족. 부모는 가족의 동반자살을 계획하고, 너무 어린 막내 만큼은 살리고 싶은 마음에 막내를 놀이공원에 유기했지만 동반 자살은 실패로 돌아가고, 가족들은 힘겹게 살아간다. 시간이 지나 가족들은 고비를 이겨내고 막내를 찾았다는 기쁜 연락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막내는 가족들에게 즉각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우리는 과연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까?



일시 | 2020년 2월 7일(금) – 2월 8일(토)
장소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러닝타임 | 130분(인터미션 포함)
티켓 | VIP석 9만원 / R석 6만원 / S석 3만원

출연진 | 양석진 강혜명 최영신 장성일 한은혜 이정은 서필 김지민 전태화 홍선진
작곡 | 공혜린
작가 | 고연옥
예술감독 | 이강호
연출 | 이회수
지휘 | 구모영

작품의 제목이자 주요 소재 '까마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혜린(작곡) 과거는 현재의 그림자로 엄연히 존재하고 그 속에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현대인, 그리고 현대사회는 과거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현재의 삶보다 더 많은 가치와 희망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그리고 한 사회에서도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림자에게 잠식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곳에 숨겨진 진정한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오페라 〈까마귀〉는 13년 만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한 가족의 고통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그 아이를 상징하는 '까마귀'는 그 가족에게 늘 드리워졌던 '그림자'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림자와 만나야 하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이어져 있다는 깨달음으로 화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지금의 나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창작오페라 초연 제작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라벨라오페라단 기존에 있던 작품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지는 작품이다 보니 모든 것이 백지에서 시작합니다. 음악, 연출 등 모든 것이 끊임없이 수정되고, 제작진은 매일같이 모여 의논을 나누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초연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 〈까마귀〉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체적이고 신선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창작오페라의 선입견을 깨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곡 과정에서 드라마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썼던 점은 무엇일까요?

공혜린(작곡) 워낙 뛰어난 연극 대본이기 때문에 오페라로 형태를 변환하는 부분에 있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가 음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국말 특유의 구성뿐만 아니라 각 인물들의 상황과 감정이 문장에 함축적으로 쓰여져 있고, 경과에 따라 변하는 감정선들 사이에 철학적인 부분까지 더해져 음악적인 처리로 인해 아쉬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난 쇼케이스 때 한국어의 발음이나 문장 구조를 선율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고민이 많았는데요, 여러 가지 시도에 다행히 호응해 주셔서 전체 작품은 더욱 안심하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IMF 때의 한 가족의 비극에 포커스를 맞춘 이야기를 오페라 장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공혜린(작곡) 극의 구성 중 가장 특별한 형태는 '까마귀들'입니다. 합창인데요. 단순히 화성을 쌓아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IMF 당시 막내를 잃어버렸을 때 놀이공원의 군중이 되기도 하고 아빠나 막내의 마음을 대변하는 등 서술 시점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오페라 장르의 특수성은 유지하되 그 이외의 음악적인 부분과 이야기 서술은 관객들에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여러 부분을 의도했습니다. 보다 젊고 감각적인 현대 오페라 〈까마귀〉를 기대해 주세요.

라벨라오페라단의 앞으로 계획은?

라벨라오페라단 지속적으로 새롭고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창작오페라 〈까마귀〉를 비롯하여, 3월 한국소극장오페라축제 선정작인 키즈오페라 〈푸푸 아일랜드〉, 7월 창작오페라 〈블랙리코더〉, 11월 그랜드오페라 〈에르나니〉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기존에 연주되는 작품이 아닌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며 라벨라 프로덕션이라는 브랜드와 자긍심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움과 감동이 살아숨쉬는 양질의 작품을 만들어가며 오페라 발전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라벨라오페라단

2007년 5월 창단한 순수 민간 오페라 단체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클래식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시도로 관객의 수준 높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라벨라오페라단은 전문 인재 양성 사업에도 지속 투자하며 미래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또한 순수예술에 대한 연구와 선진적인 시도를 통해 국내 오페라 계층에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오페라적 요소로 음악과 극의 예술적 성취가 연출적 요소와 조화로워 오페라 발전에 기여한다. 극적인 요소와 음악의 스토리 전개가 일치하고 있어 대중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음악이 관객에게 주는 상상력과 제목이 공연에 설득력 있게 표현되었다."

"이 시대를 사는 평범한 가족이 겪는 내우외환과 갈등을 그려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텍스트의 전달을 위해 자막을 쓴 부분은 돋보이는 대목이다. 창작오페라는 누구에게나 생경할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청중의 이해를 도우려는 노력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

"작곡에 있어 오페라 기본 형식에 충실하였고 다소 무거운 부분 역시 음악의 강약과 함께 아리아의 감정선을 충실히 표현하였다. 출연자의 역량도 충분했다. 한국어 가사 전달도 명확했고 발성도 명쾌했다. 극적 캐릭터를 목소리로 표현하고 연기하는 데 적합한 캐스팅이었다. 오케스트라도 배우와 호흡하며 연주되었다."

"오페라에서 작품의 창의성과 주제의 명확성은 대본이나 시놉시스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참신한 소재나 주제 또는 재미있는 대본 또한 오페라에서 큰 의미를 두지않는다. 음악이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관객은 귀를 기울이고 상상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오페라가 창작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러한 면에서 〈까마귀〉는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해 최소한의 도구를 사용하여 무대를 구성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제한된 시간과 예산으로도 창작 오페라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높게 평가한다."

"가족 간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뤘고, 극의 완성작도 훌륭했다. 현실적인 소재도 오페라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진행방식도 자연스러웠다. 극이 그려내는 인과관계와 심리묘사, 대화까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잘 만들었다."

"무대 완성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조명과 무대연출을 잘 이용한 까마귀 군무가 인상적이었다. 또 창작 오페라에서 관객들에게 장벽이 될 수 있는 대사를 스크린에 표시해 극의 흐름을 따라가기 수월했다."

"무대의 조명과 영상을 겹쳐내 다양한 효과를 만들고, 필요할 때는 의자나 여러 도구로 변화를주었다. 안무도 다양하게 변화를 꾀해 극의 몰입도와 재미를 높였다."

"성악가들이 모두 수준급이라 탁월했고 연기며, 안무며, 모두 좋았다. 합창단의 안무와 연기도 인상적이었다. 주연, 조연 배우들도 성량이 좋았고, 가사 전달력도 효과적이었다."

"배우들 연기는 골고루 좋았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등장하는 여자와 남자도 훌륭한 발성과 캐릭터 해석을 보여주었다. 특히 막내역 배우의 독특한 창법이 기억에 남는데, 기존의 성악 창법만을 고수하지 않고 뮤지컬 창법을 응용해 가사 전달력이 매우 좋았다."

"남녀 간의 사랑만 그린다고 생각했던 오페라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주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간의 문제를 다뤄 인상적이었다.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과정, 구성원 사이의 사랑과 인내 등을 그려낸 이야기와 음악이 참신하면서도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렸다."



공연예술
창작산실
역대 선정작
2008~2019

연극 분야 역대 선정작

연도	작품명	단체명
2008	그류? 그류!	창작공동체 아르케
2008	그 샘에 고인 말	극단 코끼리만보
2008	바다거북의 꿈	극단 골목길
2009	경성스타	연희단 거리패
2009	미친극	극단 백수광부
2009	1동 28번지, 차숙이네	극단 놀땅
2010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2010	사랑이 온다	극단 전망
2010	매기의 추억	극단 작은신화
2011	모든 이에게 모든 것	극단 작은신화
2011	숲속의 잠자는 옥희	극단 백수광부
2011	그리고 또 하루	극단 연우무대
2012	봄이 사라진 계절	극단 작은신화
2012	그 집 여자	극단 전망
2012	싸움꾼들	극단 청우
2013	팬지	극단 이루
2013	고공정원	극단 산
2013	2인실(二人室)	극단 풍경
2013	헤비메탈 걸스	극단 명작옥수수밭
2014	미국 아버지	극단 이와삼
2014	그림자 아이	공연제작센터
2014	공장	극단 미인
2014	그 봄, 한낮의 우울	한강아트컴퍼니
2014	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	창작공동체 아르케
2014	홍준씨는 파라오다	극단 놀땅
2014	색다른 이야기 읽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극단 대학로극장
2014	날아다니는 돌	극단 백수광부
2014	엄마	극단 작은신화
2014	맘모스 해동	공상집단 똥딴지
2015	토일릿 피플	극단 작은신화
2015	떠도는 땅	극단 두
2015	달빛 안갯길	한양레퍼토리
2015	하나코	극단 물리
2015	방문	극단 풍경
2015	고제	극단 돌파구
2015	우주의 물방울	극단 피오르
2016	인어; 바다를 부른 여인	창작집단 꼴
2016	좋은 이웃	극단 수
2016	소나기마차	공상집단 똥딴지
2016	신인류의 백분토론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2016	툇마루가 있는 집	창작공동체 아르케
2016	혈우	극단 M.Factory
2016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극단 피악
2016	쪽마루 아틀리에	아트브릿지
2016	하늘로 간 청춘팥	플레이그룹 잼잼
2017	암전	극단 두
2017	깨비가 잃어버린 도깨비 방망이	하땅세
2017	'미인도'위작 논란 이후 제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극단 위대한모험
2017	최서림, 야화순례기행전	극단 백수광부
2017	고래가 산다	유목민

공연예술 창작산실 역대 선정작 2008~2019

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7	모래시계	극단 목화
2017	선을 넘는 자들	극단놀땅
2018	분노 하세요!	극단 파수꾼
2018	비명자들1	고래
2018	가미카제 아리랑	극발전소301
2018	세기의 사나이	극단 명작옥수수밭
2018	빌미	극단 인어
2018	하거도	극단 작은신화
2018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프로덕션IDA
2019	목련 아래의 디오니오스	극단 난희
2019	수정의 밤	극단 여행자
2019	체액	즉각반응
2019	터널구간	극단 그룹 動·시대
2019	마트료시카	극단 수
2019	아랫것들의 위	극단 마고
2019	대신 목자	극단 물리
2019	의자 고치는 여인	극단 물결

무용 분야 역대 선정작

공연예술 창작산실 역대 선정작 2008~2019

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1	판소리 눈대목으로 엮는 발레	백영태
2011	비애모	김용걸댄스씨어터
2011	대답없는 외침	김경영
2011	2040년의 하루	SEO발레단
2012	Once Upon A Time In 발레	와이즈발레단
2012	회향	글로벌 컨템포러리 발레단
2012	Untitled	정형일 Ballet Creative
2012	천개의 기억	백연옥
2013	스크루지(크리스마스 캐롤)	조윤라발레단
2013	Flower Of Scotland(맥배드)	이원국발레단
2013	파랑새	문영철발레뽀에마
2013	VANITY(무상)	LEE발레단
2013	관(關)_처용을 주제로 한 다섯 개의 아포리즘	강미리할무용단
2013	푸너리 1.5	장유경무용단
2013	5번째 Birthday Party〈抛球ROCK(포구락)〉	프로젝트 수(手) & 안팍 Ann-Park
2013	행,간(between the lines)	리케이댄스
2013	I'm so tired	예효승
2013	Fake Diamond	Collective A
2014	RAGE	(사)서울발레시어터
2014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	김경영
2014	천	김선미무용단
2014	심청	이경옥무용단
2014	계보학적 탐구	(사)트러스트무용단
2014	FATAL	Compnay J
2014	에쿠우스	댄스씨어터 창

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4	시저테일 서전트	박나훈무용단
2014	안녕	김설진
2015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M발레단
2015	길 떠나는 가족	최소빈
2015	THE DOOR (La Danaide)	최진수발레단
2015	화火, 화和 – 바람을 만나다	정신혜무용단
2015	거울속의 거울	마홀라 컴퍼니
2015	소무	Art Project BORA
2015	2015	미나유(유정옥)
2015	뉴턴의 3법칙	안수영컴퍼니
2015	Smile Mask Syndrome	이정연댄스프로젝트
2016	시집가는 날	(사)서울발레시어터
2016	인간	신현지
2016	침묵	나인티나인 아트 컴퍼니
2016	귀신(鬼神)고래	윤수미무용단
2016	옛날 옛적에	고블린파티
2016	음형공간(音·形:空間) – Atopos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2016	당신의 바닥	PDPC
2016	공상 물리적 춤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시어터
2017	“The Chaos” 혼돈	최상철현대무용단
2017	美 A (미아)	휴먼 스탕스
2017	Baroque goes to Present	와이즈발레단
2017	물속 골리앗	김범호
2017	가상 리스트, Virtual List	원댄스프로젝트그룹
2017	인생의 사계를 그리는 춤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김남식&댄스투룸-다(Da)

공연예술 창작산실 역대 선정작 2008~2019

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7	가족놀이	PDPC
2017	Perfect death	Ground Zero Project
2018	변신	류장현과 친구들
2018	매스?게임! (MASS?GAME!)	장은정무용단
2018	평행교차(Parallel Cross)	안애순
2018	댕기풀이	이경옥 무용단
2018	Hidden Dimension	UBIN Dance
2018	개미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2018	소극적 적극	고블린파티
2018	Down the rabbit hole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2018	NUTCRUSHER	허성임
2019	오월바람	M발레단
2019	호모 파베르	Unplugged Bodies
2019	군림	Soo d Art & Co
2019	新청랩소디	라만무용단
2019	Body Rock	미나유
2019	Swan Lake: The Wall	정형일 ballet creative
2019	Hit&Run	시나브로 가슴에

전통예술 분야 역대 선정작

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6	해미오와 금이에	해금연구회
2016	거문고 스페이스	허윤정
2017	완창판소리프로젝트 1	이향하
2017	오셀로와 이아고	천하제일탈공작소
2017	아리랑, 삶의 노래 – 흩어진 사람들2	사단법인 정가악회
2018	"생사의" – 죽음에 관한 삶의 음악	왓와이아트
2018	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악기 '훈'의 재발견	송경근
2018	창극 〈내 이름은 사방지〉	제이유(JU)창극발전소
2019	완창판소리프로젝트2 강산제수궁가	입과손스튜디오
2019	삼대의 판	천하제일탈공작소
2019	8음	음악그룹 나무
2019	오래된 미래 :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이야기	해금플러스

창작뮤지컬 분야 역대 선정작

연도	작품명	단체명
2008	오월엔 결혼할거야(웨딩펀드)	오디뮤지컬컴퍼니
2009	번지점프를 하다	㈜뮤지컬해븐
2009	달콤한 나의 도시	오디뮤지컬컴퍼니
2009	왕세자 실종사건	극단 죽도록달린다
2009	도도	학전
2010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파파프로덕션
2010	식구를 찾아서	극단 오징어, MJ Planet
2010	콩칠팔 새삼룩	모비딕 프로덕션
2011	Underneath Memory(언더니스 메모리)	㈜스컹크웍스
2011	Trace U(그 남자의 비밀)	㈜장인엔터테인먼트
2012	영웅을 기다리며	파파프로덕션
2012	내 결혼식에 와줘	공연예술제작소 비상
2012	완득이	㈜에이콤인터내셔날
2012	덕혜옹주	극단 그애생각
2012	미드나잇 블루	㈜더프로액터스
2013	공동경비구역 JSA	CenS
2013	정글라이프	와뮤지컬그라운드
2013	가야십이지곡	창작집단 기능재부
2013	곤, 더 버스커	오픈런뮤지컬컴퍼니
2013	런웨이비트	달 컴퍼니
2013	주홍글씨(A)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4	신과 함께 가라	뮤지컬이야기쇼
2014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위네트웍스
2014	달빛요정과 소녀	극단 차이무
2014	바람직한 청소년	㈜이다엔터테인먼트

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4	봄날	극단 하늘하늘
2014	아보카토	LSM Company
2014	파리넬리	에이치제이컬쳐
2015	스페셜 딜리버리(맘2맘)	신나는 극단 하늘 나는 오징어
2015	안녕! 유에프오	LSM Company
2015	에어포트 베이비	㈜신시컴퍼니
2015	웰다잉	스페셜원컴퍼니
2016	경성특사	비무브드 컴퍼니
2016	레드북	바이브 매니지먼트
2016	청춘, 18대1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6	광염소나타	아시아브릿지컨텐츠
2017	찰리 찰리	㈜연우무대
2017	카라마조프	주식회사 아츠온
2017	줄리앤폴	컬처트리
2018	마리 퀴리	라이브(주)
2018	재생불량소년	아웃스포큰
2018	HOPE-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알앤디웍스
2019	안테모사	공연창작소 M.A.P
2019	아티스	㈜홍컴퍼니
2019	봄을 그대에게	㈜컬쳐마인
2019	via air Mail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창작오페라 분야 역대 선정작

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0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강동아트센터
2010	도시연가	대구오페라하우스
2011	천 년의 사랑	창음예술
2011	나는 이중섭이다.	코리안챔버오페라단
2012	쉰 살의 남자	부평아트센터
2012	아리 아리랑	한오페라단
2013	루갈다	호남오페라단
2014	운영(서천 꿈길, 저편)	서울오페라앙상블
2016	붉은 자화상	서울오페라앙상블
2017	1953년	오페라앙상블C
2018	인형의 신전	영산오페라단
2018	검은 리코더	(사)라벨라오페라단
2019	까마귀	(사)라벨라오페라단
2019	김부장의죽음	오페라뱅크

공연예술 창작산실 역대 선정작 2008~2019

2019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펴낸곳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www.arko.or.kr
T. 061 – 900 – 2204
F. 061 – 900 – 2365
M. yunforarts@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박종관
사무처장 | 전효관
공연예술본부장 | 장계한
예술극장극장장(직무대리) | 송시경

공연창작부
부장 | 양한성
공연예술창작산실 기획운영 | 김영일, 황금실, 백지윤, 이지연, 이경현
관객 개발 | 이경현

극장운영부
부장 | 정영순
극장경영팀 | 박성은, 김상희, 이효정, 강수정, 류정숙, 임나래
공연기획 홍보팀 | 송윤정, 이유진, 정재은, 김윤형, 이주담, 최예솔, 정혜영, 이은강
시설운영팀 | 이기복, 변고은, 이경민, 황수희, 박유진, 김환구, 박동진, 박성국, 윤지환, 유호성

무대기술부
부장 | 진용남
무대팀| 이동선, 천원욱, 김예곤, 신동환, 유창대, 박민호, 김인성, 서지훈, 원소미, 김혜지
조명팀 | 이주환, 이인연, 탁형선, 김병구, 안정민, 김태진, 이태금
음향팀 | 도명호, 김동수, 김경남, 허선영, 이제형, 김종현

협력사
홍보대행 | (주)아이디어랩
영상 제작 | 연두픽처스
쇼케이스 사진 | 옥상훈
공연사진 | 하지영, 옥상훈
자료집 제작 | (주)보스토크 프레스
디자인 | 물질과 비물질

초판 발행일 | 2020.9.9.
ISBN |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and the artist.